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헤이트(J.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 연구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양해성

헤이트(J.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 연구

지도교수 정 창 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양 해 성

양해성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위 원 장 _____(인)

부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헤이트(J.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 연구

양해성

헤이트(J. Haidt)는 인간의 도덕 기능을 사실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의 연구는 사실적 차원의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정당화 차원이나 처방적 차원에서 그의 연구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접근 방식이다. 그의 연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연구가 인간 도덕 기능을 사실적 차원에서 타당하게 규명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헤이트에 따르면 개인의 도덕적 판단은 문화적으로 조형화되며, 정서 반응의 영향을 크게 받고, 직관적인 형태로 도출된다. 그리고 추론은 직관적 판단을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의 연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가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의 연구에서 도덕적 판단이란 도덕적 행위 선택을 위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제 3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로서의 의미에 가깝다. 추론이란 인지의 형태로 직관과 대비되는 개념이며 비자동성, 의도성 등을 특징으로 하나 합리주의 접근의 관점과 달리 정서와 분리된 이성 작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연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째, 그의 연구 즉, 사실적 차원의 규명과 당위적 차원에서의 그의 관점을 구분하여야 한다. 사실적 차원의 규명에 초점을 맞춘 그의 연구에서 문화란 보편성에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그는 당위적 차원에서는 극단적 상대주의를 배격하는 관점을 취한다. 그의 연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셋째, 그의 연구 방법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는 제 3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도덕적 판단을 다루고 있으며 복잡한 상황에서 개인이 어떠한 방식

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는가를 다루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그는 직관을 강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연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동안 간과되었던 인간 도덕 기능의 사실적 특징을 규명하였다. 그의 연구는 도덕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인간의 사실적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그의 연구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에 대한 동기화는 정서 반응에 크게 의존하며 추론은 이를 합리화 하는데 기여한다. 그렇기에 도덕 교육은 어린 시절에 학생들이 올바른 도덕적 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청소년기의 추론 중심 도덕 교육은 추론 능력 그 자체가 아닌 반성적 추론에 기여하여야 한다. 덧붙여 반성적 추론은 개인의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서적 영향을 동반하는 교육을 통해 외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은 정서적 반응에 반하는 판단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도덕 교육은 '도덕적 삶이 행복한 삶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주요어 : 헤이트, 도덕 기능, 사회적 직관주의, 도덕적 판단, 도덕적 직관, 반성적 추론, 도덕 교육

학번 : 2011-21554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5
II.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이론적 배경	8
1.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등장 배경	9
1) 콜버그 이론의 특징과 한계	10
2) 직관주의의 등장 배경	13
2.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이론적 기초	16
1) 윤리학적 기초	16
2) 심리학적 기초	18
3) 뇌 과학적 기초	22
III.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개념과 구조	25
1. 직관적 도덕 판단의 기제와 특징	26
1) 직관적 도덕 판단의 기제	26
2) 직관적 도덕 판단의 특징	29
2. 도덕적 직관의 기원과 발달 기제	39
1) 도덕 기반 이론의 개념	40
2) 도덕적 직관의 기원	45
3) 도덕적 직관의 발달 기제	48

IV.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51
1.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대한 평가	53
1)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의의	53
2)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한계	56
2. 도덕 발달 이론에의 시사점	61
1) 레스트의 4구성 요소 모델에의 시사점	61
2) 블라지의 도덕적 정체성 이론에의 시사점	64
3. 도덕 교육에의 시사점	72
1) 나바에츠의 통합적 윤리 교육 이론에의 시사점	73
2) 도덕 교육의 실제에의 시사점	89
V. 결론	93
참고문헌	97

표 목 차

<표-1> 추론 체제와 직관 체제의 비교	13
<표-2> 여섯 가지 도덕성 기반	43
<표-3> 아동기의 도덕적 직관 형성이 추론을 통한 교육에 미치는 영향	54
<표-4> 블라지의 자아 모델(Self Model)의 7가지 명제.....	61
<표-5> 삼층 윤리의 도덕적 정향	67
<표-6> 삼층 윤리의 대표적 특징.....	71
<표-7> 도덕적 행동의 네 가지 요소와 기술 및 각각의 하위기술.....	74

그 립 목 차

<그림-1> 웨이슨의 네 장의 카드 과제	20
<그림-2> 도덕적 판단에 관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	26
<그림-3> 도덕적 판단에 관한 이성주의 모델	27
<그림-4> 도덕적 직관의 발달에 관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	49
<그림-5> 도덕성 발달 모델	57
<그림-6> 도덕적 정체성과 동기화에 대한 블라지의 이론	63

I. 서론

1. 연구 목적

도덕성에 대한 관심은 크게 ‘도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과 ‘인간의 도덕기능은 어떠한 기제를 통해 발현 되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관한 논의가 도덕 철학 담론의 영역이라면 후자에 대한 논의는 도덕 심리학 담론의 영역이 될 것이다. 즉, 도덕 철학의 주된 목적이 정당화 가능한 도덕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라면, 도덕 심리학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도덕 발달과 도덕 기능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다. 도덕 철학을 통해 도덕을 정당화하는 작업과 도덕 심리학을 통해 심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작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도덕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들과 함께 성공적인 도덕 교육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도덕 철학 연구가 도덕 교육의 목적 설정에 필수적이라면, 도덕 심리학 연구는 도덕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전제해야 하는 인간의 심리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도덕 철학과 도덕 심리학의 결합을 시도한 작업은 콜버그(L. Kohlberg)로부터 시작되었다. 콜버그는 도덕성의 성격(정의, 의미, 본질)에 대한 관심 없이 도덕성 획득의 메커니즘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기에(정창우, 2013, p. 183), 칸트(I. Kant)로 대표되는 이성주의 윤리에 기반하여 도덕의 정당화 작업을 선행하며,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에 근거한 판단과 행위라는 도덕 발달의 지향점을 설정해 놓고 이성에 의한 추론 능력¹⁾의 발달

1) 합리주의 접근은 이성과 정서가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전제로 추론과 정서적 반응을 구분한다. 그러나 직관주의 접근은 이성과 정서가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관점을 전제로, 자동성 또는 의도성을 기준으로 인지의 형태를 추론과 직관으로 구분한다. 이에 직관주의 접근은 추론에도 정서가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전제한다. 즉, 합리주의 접근에서 사용하는 추론 개념과 직관주의 접근에서 사용하는 추론 개념은 추론에 있어 정서의 영향 가능여부에 있어 차이를 갖는다. 본 연구는 용어의 혼란으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합리주의 접근에서의 추론을 ‘이

을 통한 도덕성의 발달을 당위적·처방적 차원에서 주장하였다. 콜버그에 있어 도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이며, 그렇기에 도덕성의 핵심은 의지, 습관, 정서 등이 아닌 ‘이성적 추론’ 이 된다. 그렇기에 콜버그의 연구는 ‘이성적 추론 능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달되는가’ 와 ‘이성적 추론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 를 규명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콜버그의 이론은 도덕 철학과 도덕 심리학의 접목을 이루어 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의 지향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성의 발달과 관련된 인간의 도덕 기능을 이성적 측면에만 집중시켜 한정적으로 설명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최근 ‘감정과 완전히 분리된 이성적 추론에 의한 도덕적 판단이 존재하기 어렵다’ 는 도덕 심리학계 및 신경 과학계의 비판이나 ‘수업에서의 도덕적 판단이 일상에서의 도덕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와 같은 도덕 교육학계의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는 이성을 통한 추론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접근의 도덕 심리학적 타당성과 도덕 교육적 실효성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회의감의 공유는 ‘인간 도덕 기능의 메커니즘’ 을 파악하고자 하는 도덕 심리학 분야의 활발한 연구로 이어졌고, 이는 도덕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과 이러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대한 규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복합적이고 사실적인 기제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도덕 심리학계에서는 직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직관주의는 일상에 있어 개인의 도덕²⁾적 판단과 행위가 정서적 반응의 영향 하에 반사적이고 자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정서와 분리된 이성을 통한 추론에 대한 강조나 추론에 따른 도덕적 판단 및 행위에 대한 강조가 개인의 도덕 기능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회의감을 드러낸다. fMRI(기능성 자기공명영상장치)의 발전 등에 힘

성적 추론’ 이라 표기한다.

- 2) 직관주의에서 사용하는 도덕이란 용어는 콜버그의 합리주의에 익숙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덕 즉, 영역 이론의 구분에 따른 도덕의 의미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람들이 도덕의 영역으로 인지하는 무언가’ 를 의미한다.

입어 쏟아져 나온 다양한 뇌 과학적 연구와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 성과들은 직관주의의 관점을 뒷받침 하였고, 직관주의 접근의 타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인 헤이트(J.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Social Intuitionist Model)은 직관주의 접근을 통해 인간 도덕 기능의 기제를 밝히고자 한 심리학 연구이다. 헤이트는 도덕성의 정당화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다양한 뇌 과학적·심리학적 연구들을 근거로 인간의 도덕 기능이 어떠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가를 ‘사실적 차원’에서 서술하고자 하였다. 즉, 헤이트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도덕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기제를 통해 도덕적 판단이 도출 되는가’를 사실적 차원에서 서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도덕 판단은 ‘도덕적 직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인지하는 도덕의 개념은 사회·문화³⁾적 맥락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는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SIM)을 통해 ‘도덕적 직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도덕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지’를 ‘사회·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과정속’에서 증명한다.

도덕 기능의 기제에 대한 사실적 이해가 없는 도덕 교육은 인간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현실의 삶과 괴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 콜버그의 합리주의 접근에 기반한 세계의 다양한 인성 교육이 계속해서 발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교육에 접목되었을 때 학생들을 도덕적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비난에 직면 하였으며, 교육이 현실과 괴리되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인간의 도덕 기능이 어떠한 방식(직관)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채, 도덕적 인간

3) 헤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개인의 도덕 기능을 설명함에 있어 사용하는 ‘문화적 맥락의 영향 하에 있는 도덕’이라는 개념은 보편타당한 도덕과 구분되는 상대주의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헤이트가 극단적 상대주의를 비판하며 ‘충분히 문화화 된 인간이 덕 있는 인간이다’라는 말(Haidt & Bjorklund, 2008, pp. 215-216)을 통해 ‘긍정’하는 문화의 개념은 ‘인권과 같은 보편타당한 도덕적 가치를 동시에 전제하는 개별적인 문화’를 의미한다. 즉 헤이트는 사실적 차원에서, 개인이 문화의 영향을 떠나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당위적 차원에서, 문화란 어느정도의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추론)을 알려주는 것은 학생들이 지향점의 방향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학생들이 지향점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반성적 추론)을 담보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헤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검토함으로써 인간 도덕 기능의 기제를 사실적 측면에서 규명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도덕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갖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규명들을 적용하여 추론 중심 도덕 교육이 갖는 실효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향후 도덕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작업들은 첫째,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직관적인 도덕 판단의 기제’와 ‘도덕적 직관의 형성·발달 기제’를 검토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한계와 의의를 도출하고 이러한 한계와 의의가 도덕 발달 및 도덕 교육 이론과 교육의 실제에 있어 갖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 있어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문헌을 검토함으로써 상이한 입장의 연구들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연구의 상이한 관점을 비교함에 있어 용어 사용의 차이로 인한 오해를 없애고자 할 것이다.

첫 번째 작업인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대한 검토’는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영향을 준 연구들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행할 것이다. 연구자는 우선 2장에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기반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학적 기반을 검토할 것이다. 우선 1절에서는 합리주의 접근을 대표하는 콜버그의 인지발달론이 갖는 특징과 한계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검토함으로써 직관주의가 조명을 받게 된 배경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기반하고 있는 윤리학, 뇌 과학 및 심리학 분야의 이론 및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영향을 준 윤리학 이론으로는 흄(D. Hume)의 이론이 있다. 흄은 이성이 정념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성이 정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흄은 감정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통해 인간의 도덕 기능에 있어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영향을 준 심리학 연구로는 첫째, 문화적 특성에 따라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도덕의 범주와 형태가 달라진다는 슈웨더(R. Shweder)의 연구가 있다. 이에 착안하여 헤이트는 도덕적 판단이란 문화 혹은 하위 문화에 의해 의무적인 것으로 지되는 일련의 덕에 대한 존경심으로 형성되는 ‘행동이나 사람의 인격에

대한 평가(좋음과 나쁨)’ 이라고 정의하였다(Haidt, 2001, p. 817).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심리학 연구로는 인간의 인지가 하위 인지와 상위인지로 구분되며, 하위 인지는 판단에 작용하고 상위 인지는 합리화에 작용한다는 마골리스(H. Margolis)의 연구가 있다. 마골리스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인지과정이 작동하는데, 바로 ‘보이는 그대로의 인지 과정’ 과 ‘이유를 찾아내는 인지과정’ 이다. 이에 착안하여 헤이트는 직관에 의한 판단과 추론에 의한 합리화의 도식을 도출한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기반하고 있는 뇌 과학 분야의 연구로는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내측 전전두엽 피질(vmPFC)에 손상을 입은 환자가 현실의 상황에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거나 아예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다마지오(A. Damasio)의 연구와 개인에게 직접 해를 가하지 않는 비인신적 상황에 비해 개인에게 직접 해를 가하는 인신적 상황에서 감정 처리와 관련된 뇌의 여러 영역들이 더 활성화 되며, 이러한 정서적 반응이 도덕적 판단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린(J. Greene)의 연구가 있다. 헤이트는 다마지오와 그린의 연구를 통해 뇌의 감정적 활동이 배제될 경우 인간의 도덕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판단에 있어 감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에 기반하여 제시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도덕적 판단의 기제’ 및 ‘도덕적 직관의 기원과 발달 기제’ 를 분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전자가 직관적 도덕 판단 기제를 규명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대한 검토 작업이라면, 후자는 직관적 도덕 판단 기제의 기반이 되는 직관의 기원과 발달 기제를 다룬 도덕 기반 이론(Moral Foundation Theory)에 대한 검토 작업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작업은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의의와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도덕 교육에 있어서의 적용 시사점을 모색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우선 4장 1절에서는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의의와 한계를 도출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규명한 바를 명확히 하고

규명된 인간 도덕 기능의 특징을 도덕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기초 작업으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인간 도덕 기능의 ‘사실적’ 측면을 타당하게 규명 하였는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도덕을 정당화하거나 도덕 교육에 있어서의 처방을 제시하지 않으며, 도덕 기능의 사실적 측면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는 모델이 인간 도덕 기능의 사실적 측면을 타당하게 규명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절과 3절에서는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규명에 성공한 점들이 도덕 교육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지를 도출할 것이다. 언급하였듯,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도덕의 목표를 제시하거나 도덕 교육에 있어서의 처방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 않다. 즉,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도덕 교육에 있어 무언가를 강조해야 한다거나 무언가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 없이,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도덕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도덕으로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가와 같은 사실적 측면만을 서술하고 있다. 그렇기에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도덕 교육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접근은 타당하지 못하며,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규명한 인간의 특징들을 고려할 때 도덕 교육이 무엇을 경계하고 어떠한 교육 방법들을 활용해야 하는가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간 도덕 기능의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을 모색한 최근의 여러 통합적 도덕 발달 이론 및 통합적 도덕 교육 이론들을 활용할 것이다.

II.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이성적 추론을 강조하며 그간 도덕 심리학계와 도덕 교육계를 이끌어온 합리주의 접근의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 합리주의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되었던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덕 심리학계와 도덕 교육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를 거시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작업은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어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기반하고 있는 윤리학적 배경과 뇌 과학 연구 및 도덕 심리학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학적 기반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작업 또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1.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등장 배경

과학적 연구 방법의 등장과 함께 도덕성에 대한 연구는 정신분석학적 접근, 사회학습이론적 접근, 인지주의적 접근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프로이트(S. Freud)에 의해 시작된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도덕 발달에 있어 인지적·합리적 요인들 보다는 정의적·비합리적 충동들을 강조한다. 반두라(A. Bandura)로 대표되는 사회학습이론적 접근은 도덕 발달을 학습·조건화·사회화의 산물로 본다. 콜버그(L. Kohlberg)를 위시한 인지주의적 접근은 인간의 도덕 발달이 지적 발달과 동일한 양상을 띠며 인지 구조의 평형화 과정을 통해 도덕적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1960년대 콜버그의 인지발달론에 의해 인지혁명(cognitive revolution)이 일어난 후, 인지주의 접근은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설명하고 교육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해왔다. 콜버그는 당위적 차원에서 도덕의 성격을 정의하고 그를 토대로 도덕 심리학 및 도덕 교육학 논의를 진행한다. 즉, 콜버그는 도덕 철학적으로 합리주의에 기반하여 도덕 심리학 및 도덕 교육학에 있어 인지주의 접근을 제시한다.⁴⁾ 이에 따라 ‘이성적 추론’이 도덕 심리학 및 도덕 교육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고 이성 이외의 요소들은 한동안 주요 연구의 범위 밖으로 밀려났다. 또한 콜버그는 도덕적 판단의 내용이 아닌 그 내용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합리주의 접근에 있어 도덕적이라는 평가의 일차적 대상은 도덕적 행위가 아닌 도덕적 사고나 이성적 추론을 통한 도덕적 판단이 된다. 최근 이러한 합리주의 접근이 ‘도덕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의 규명 및 ‘도덕적 판단이 도덕적 행위로 도출되는 메커니즘’의 규명에 있어 한계를 드러냈고 이는 ‘도덕성을 구성하는 다양

4) 본 연구는 심리학적 연구인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콜버그 이론과 학습의 차원에서 비교하지 않으며, 유의미한 논의는 이성과 정서의 분리된 작용 가능성에 대한 두 이론 간의 견해 차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콜버그의 이론을 인지주의 접근으로 지칭하지 않고 합리주의 접근으로 지칭한다.

한 요소’와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위를 이어주는 복합적인 메커니즘’에 관한 다양한 연구로 이어졌다.

1) 콜버그 이론의 특징과 한계

최근까지 도덕 발달에 대한 심리학 연구와 도덕 교육을 주도해 온 합리주의 접근은 콜버그의 ‘인지혁명(cognitive revolution)’으로부터 시작된다. 콜버그는 별개의 영역에서 논의되어 온 도덕 철학과 심리학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성주의 윤리와 인지발달 이론의 결합을 시도한다. 콜버그에 따르면 도덕이란 이성에 의해 진위가 판명되는 것으로서 정서주의 접근이 주장하듯 주관적인 차원의 견해나 태도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콜버그는 인간의 도덕 발달을 정의(情意)적인 측면의 발달로 파악한 정신분석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비판한다. 또한 그는 문화 상대주의에 기반한 윤리 상대주의를 비판하며, 도덕이란 임의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규칙·문화 등과 구별되는 객관 타당성을 갖는 것이라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가 규정한 규범 또는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은 도덕의 내면화 과정이 아닌 인습의 내면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도덕성 발달의 핵심을 ‘이성을 통한, 도덕원리에 대한 추론’ 능력의 발달로 보며, 이성주의 윤리를 대표하는 칸트(I. Kant)의 이론을 받아들여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를 추론해 내는 단계를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 발달 단계로 본다. 즉, 콜버그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도덕적 판단의 내용이 아닌 도덕적 판단의 근거이다.

나아가 콜버그는 합리주의 기반 하에 도덕성 발달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피아제(J. Piaget)의 구성주의적 인지발달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연령의 증가에 따라 도덕 추론이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첫째, 도덕적 추론 능력 즉, 도덕 원리에 대한 추론 능력은 문화적 차이와 관련 없이 3수준 6단계로 구분된다. 즉, 도덕성의 발달은 보편적인 계열성을 갖는다. 둘째,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은 동화-조절

-평형화의 과정을 통해 루어진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추론능력의 발달은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연속적인 조절(accommodation)의 결과이다. 콜버그는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상위 단계의 도덕적 추론에 개인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인지적 불균형을 유발하고, 이러한 인지적 비평형 상태를 통해 개인의 도덕 발달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블래트 효과(Blatt Effect)를 의도하며 콜버그는 도덕 딜레마 토론 및 정의 공동체 접근(Just Community Approach)을 제시한다.

콜버그는 현상주의(phenomenalism) 가정에 기반하여 도덕적 행동을 외부적 우연성의 작용과 관련시키는 행동주의자들을 비판하고 도덕의 합리성을 옹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현상주의적 접근은 도덕 철학과 도덕 심리학의 결합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상주의 가정에 대한 무비판적 의존으로 인하여 콜버그류의 인지주의 도덕 심리학은 도덕적 행동에 대한 연구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고, 이는 여타 심리학 연구의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다양한 연구 결과들로부터 도덕 심리학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합리주의 접근은 개인의 도덕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와 도덕적 판단이 도덕적 행위로 이어지는 기제를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회의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도덕적 판단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소를 밝히려는 노력,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기제를 밝히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은 도덕 기능에 작용하는 요소로서 정서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 호프만(M. Hoffman)은 합리적 추론이 도덕적 행위를 동기화 하지 못하는 것에 회의를 갖고, 정서 발달을 통한 도덕적 행위의 동기화에 관심을 가졌다. 호프만은 도덕적 삶에 있어 공감(empathy) 및 감정이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마주하는 전형적인 도덕적 상황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 아니며, 전형적인 도덕적 상황은 다른 사람이 곤경에 빠져있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방관자 개입(bystander intervention)의 상황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은 복잡한 추론이나 도덕 원리에 기반하는 반응이 아닌 정서

에 기반한 반응이라 지적하며, 행위의 동기화에 있어 정서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가 이성적 요소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그는 도덕 발달에 있어 감정적 요소와 이성적 요소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타인을 조망하는 인지 능력의 발달이 공감적 정서의 각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도덕적 인지는 정서적 요소인 공감과의 결합을 통해 뜨거운 인지(hot cognition)가 될 수 있다.

길리건(C. Gilligan)과 나딩스(N. Noddings)의 연구 또한 도덕성에 있어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길리건은 성차에 따른 도덕적 정향의 차이를 연구하며 도덕성의 근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길리건은 합리주의 접근이 강조해온 ‘정의(justice)’ 외에 ‘배려(care)’를 강조하며, 이러한 관점을 계승한 나딩스는 도덕적 행위의 근원을 도덕적 정서 즉, 배려에서 찾으며 구체적이고 상황 맥락적인 실천윤리로서 배려윤리를 제시한다. 나딩스에 따르면 이러한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으로 남을 배려하고자 하는 감정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배려의 감정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는 배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정체성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화에 작용한다고 보고 ‘도덕적 정체성이론’을 제시한 데이먼(W. Damon)과 블라지(A. Blasi) 및 도덕적 행위를 구성하는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의 상호 작용을 규명한 ‘4구성요소 모형’을 제시한 레스트(J. Rest) 또한 통합적 관점에서 인지의 중요성과 함께 감정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블라지는 도덕 판단과 도덕적 행동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도덕적 정체성을 지목한다. 그는 인간이 자아감(sense of self)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려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체성의 중심에 도덕이 위치한 사람일수록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행위에 이르기까지 도덕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즉,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자아일치(self-consistency)의 욕구이며 이는 도덕적 정체성에 기인한다. 데이먼에 따르면 도덕적 정체성(moral identity)이란 ‘도덕 원리’를 통해 정의된 자아(self)를 의미한다. 데이먼은 자아개념 발달 연구를 통해 청

소년기가 도덕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임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동하는 것은 도덕성과 자아 간의 분리와 부조화로부터 통합으로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

레스트는 도덕 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 도덕 판단(moral judgment),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 도덕적 품성 및 실행력(moral character)이다. 도덕적 민감성은 어떠한 상황을 도덕적 문제 상황으로 감지하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 행동들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도덕적 판단 능력은 가능한 행동들 중에서 도덕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는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이며, 도덕적 동기화는 행위를 동기화 할 수 있는 여타 가치들보다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 품성 및 실행력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도덕적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내, 굳건함 등의 인격적 특질이나 자아강도(self-strength) 등을 의미한다. 레스트에 따르면 이러한 네 가지 구성요소는 각기 다른 종류의 인지적-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2) 직관주의의 등장 배경

콜버그의 합리주의 접근은 이성과 정서의 분리를 전제로, ‘이성에 의한’ 추론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직관주의는 기본적으로 판단에 있어 이성과 정서가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관점을 전제로 인지(cognition)의 형태로서 추론(reasoning)과 직관(intuition)을 구분한다. 즉, 직관주의는 합리주의 접근과는 달리 추론 또한 정서의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을 전제한다. 이렇듯 엄밀한 차원에서 합리주의 접근과 직관주의 접근에서 사용하는 추론 개념은 구별된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관주의 접근의 관점에서 구분한 추론과 직관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헤이트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표-1>과 같이 추론과 직관을 비교한다(Haidt, 2001, p. 818).

<표-1> 추론 체제와 직관 체제의 비교

추론 체제(reasoning system)	직관 체제(intuitive system)
느림	자동적이고 반사적이고 신속함
의도적인 인지적 노력이 필요	인지적 노력이 필요 없음
의식적으로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음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단지 결과만을 파악할 수 있음
주의 깊은 자료원(resources)이 요구됨	주의 깊은 자료원(resources)이 요구되지 않음
연속적인 과정	평행적인 과정
분석적, 진실 보존적 사고	은유적, 총체적 사고
인간은 2세 이후에 가능하며 훈련받은 약간의 원숭이도 가능	모든 포유동물에 공통적으로 있음
맥락(context) 독립적	맥락(context) 의존적
기반(platform) 독립적(추론 과정은 유기체 혹은 기계적 구조에 후속되는 어떠한 규칙을 따르는 것임)	기반(platform) 의존적(직관을 저장하고 있는 두뇌와 신체에 의존)

직관에 대한 관심은 도덕 기능, 특히 도덕 판단 및 행위에 있어 정서의 중요성을 환기시켰고, 많은 경우에 있어이성과 정서가 분리되어 작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직관주의 접근은 합리주의 접근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서와 분리된 이성의 작용에 대한 강조’에서 찾았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헤이트는 ‘합리주의 접근의 관점에서 이성과 정서의 구분이 익숙한 우리가, 정서와 분리된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직관주의 접

근이 의구심을 갖는 네 가지 이유⁵⁾’ 를 다양한 연구물들을 근거로 제시한다. 첫째, 직관적 판단의 존재는 감정과 분리된 이성의 중요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진다. 다양한 연구들은 직관적 판단이 정서의 영향 하에 놓인다는 것을 밝힌다. 둘째, 추론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동기화가 필요하고 셋째, 동기화 된 추론은 직관적 판단에 대한 사후 합리화의 역할을 한다. 즉, 정서적 반응은 최초의 직관적 판단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합리화를 담당하는 추론을 동기화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도덕적 행동의 도출은 도덕적 추론보다는 도덕적 정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최근의 연구들은 특히 정적 도덕성과 추론 능력이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규명하였다(Haidt, 2001, pp. 819-825).

헤이트가 근거로 들고 있는 연구들 외에도 최근의 신경과학계의 다양한 연구들은 도덕 기능이 ‘정서적 영향 없는 이성적 추론’ 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서적 영향 하에 이루어지며, 많은 경우 직관적인 판단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최근의 신경과학적 도덕 연구들로는 도덕 판단은 암묵적 편견성을 가진다는 그린월드와 바나지의 연구(Greenwald, Banaji, 1995), 합리적인 도덕적 행위자의 추론 능력은 제한적이거나 인지적 편견에 종속된다는 길로비치, 그리핀, 카네만의 연구(Gilovitch, Griffin, Kahneman, 2002), 도덕 행동의 유발에 있어 사소한 상황 변화에 의한 영향이나 프라임(priming) 효과 및 여타 무의식적인 영향들에 관한 하신과 울레만 그리고 바흐의 연구(Hassin, Uleman, Bargh, 2006) 등이 있다(박장호, 2012, pp. 140-141).

5) 헤이트(Haidt, 2001:819)의 논문에는 Four Reasons to Doubt the Casual Importance of Reason으로 되어 있으며 강인구(강인구, 2003:48)의 논문에는 이성의 중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4가지 이유로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은 합리주의 접근이 ‘이성에 의한 추론’ 을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취하고 그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casual을 ‘합리주의 접근의 관점에서 이성과 정서의 구분이 익숙한 우리가’ 로, reason을 ‘정서와 분리된 이성’ 으로 importance를 ‘중요성에 대한 강조’ 로 풀어서 기술하였다.

2.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이론적 기초

헤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인간의 도덕 기능에 대한 합리주의 접근의 관점에 의구심을 품고, 인지에 있어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덕적 판단에 있어 정서적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덕적 신념에 있어 사회·문화적인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기반 하는 이론적 기초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윤리학적 기초

흠에 있어 철학적 탐구의 초점은 인간 본성 자체이다. 그렇기에 그에게 있어 윤리학은 ‘인간 본성’에 대한 경험적 탐구를 목표로 하는 하나의 체계적인 인간과학이며, 윤리학의 일차적 목표는 도덕적 정당화가 아닌 도덕적 사실들에 대한 서술이다. 즉, 그에게 있어 윤리학의 일차적 목표는 덕 또는 악덕으로 여겨지는 행위들의 규칙들을 ‘서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그는 인간에 본성에 대하여 ‘인간에 있어 지배적인 행위 요인은 이성이 아닌 감정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박찬구, 1995, p. 87). 흠은 감정의 지배를 도덕적 행위의 동기화 부분과 도덕 판단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동기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흠은 행위를 동기화하고 의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정념과 욕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성은 적절한 대상의 존재를 알려줌으로써 감정을 작동시키거나 인과 관계를 밝혀줌으로써 감정의 행사 수단을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만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흠은 이성주의 윤리에 대한 거부를 명확히 밝히며,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이성 홀로는 어떤 의지적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없다’는 명제와 ‘이성은 의지의 방향을 결정할 때 결코 정념과 대립할 수 없다’는 명제를 증명한다.

첫 번째 명제인 ‘이성 홀로는 어떤 의지적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없

다’의 증명과정에서 흠은 이성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 역할을 규명한다. 그에 따르면 이성은 ‘논증적 이성’과 ‘귀납적이성’으로 나뉜다. 이 두 가지 이성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논증적 이성은 관념들의 관계를 밝히고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는 ‘증명(demonstration)’의 기능을 하며, 귀납적 이성은 경험적이고 인과적인 지식 또는 신념과 관계되는 ‘개연성(probability)’을 밝히는데 작용한다. 논증적 이성은 수학·논리학 분야에서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이성으로 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관련짓는 일에는 도움을 주지만 행위의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 귀납적 이성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인과적으로 관계되는지를 밝혀내는 이성으로, 현실 사건의 인과적 관계를 인지하게 함으로써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는 행위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그에 따르면 행위의 원인은 대상을 향한 고통이나 쾌락에 대한 전망에서 유래한다(박경일, 2014, pp. 22-23).

두 번째 명제인 ‘이성은 의지의 방향을 결정할 때 결코 정념과 대립할 수 없다’와 관련하여 흠은, ‘첫 번째 명제가 참이라면 이성은 어떠한 행위도 촉발시키지 못한다. 의욕의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반대되는 내적 충동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성은 내적 충동을 일으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지의 방향을 결정할 때 정념과 대립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증명한다. 그에 따르면 이성은 적절한 대상의 존재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감정을 작동시켜 간접적으로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다(박경일, 2014, pp. 23-24).

흠은 또한 도덕적 판단이 주관적 감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흠에 따르면 선과 악이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 인격 자체’ 안에 있는 요소라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 자신의 시인(approbation) 혹은 부인(disapprobation)과 같은 ‘2차적 감정(sentiment)’에 놓여있는 것이며 이는 대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직접적인 즐거움 혹은 고통과 같은 1차적 감각(sensation)과 결부되어 있다. 흠에 따르면 도덕성은 판단된다고 하기 보다는 느껴진다고 말하는 편이

적절하며, 도덕이란 귀납적인 추론을 통해서 확립할 수 있는 사실의 문제는 아니며, ‘느낌에 대한 사실’의 문제이다(박찬구, 1995, pp. 87-88).

2) 심리학적 기초

헤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영향을 미친 심리학 연구는 슈웨더(R. Shweder)의 연구와 마골리스(H. Margolis)의 연구가 있다. 슈웨더는 사회 중심적 문화의 인도 오리사(Orisa) 지역에 거주하며 개인 중심적 문화를 공유하는 미국인과 사회 중심적 문화를 공유하는 오리사 주민의 사고방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콜버그(L. Kohlberg)의 이론과 그에 기반한 튜리엘(E. Turiel)의 이론이 개인주의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화적 차이가 자아 관념에 대한 차이를 유발하고 이는 도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유발할 것이라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그는 사회 중심적 문화의 오리사 주민들이 개인주의적 문화의 미국인들처럼 도덕적 규칙(타인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하거나 공정성을 지키는 것)과 사회적 규약(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구분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 질문은 미국 또는 오리사에서 규칙 위반으로 비칠 수 있는 3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뷰는 미국의 아동과 오리사의 브라만 계층의 아동 각 180명, 미국의 성인과 오리사의 브라만 계층의 성인 각 60명, 오리사의 하층민 1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은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피해가 가는 상황과 타인에게 해가 되거나 불공평할 것이 없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은 피험자의 반응을 기준으로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한 범주는 미국인과 오리사 주민 모두가 비난하는 상황들이며, 한 범주는 미국인은 비난하지만 오리사 주민은 비난하지 않는 상황들이다. 누군가에게 해가 되거나 불공평할 것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이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오리사 주민들은 비난적인 태도를 보였다(Haidt, 2012/2014, pp. 49-55).

[미국인과 오리사 주민 모두가 잘못이라 말한 행동]

- 한 남자가 길을 걷고 있다. 남자는 길 위에 개 한 마리가 누워 자는 것을 보고는 개에게 다가가 발로 걷어찬다.
-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이번 시험을 잘 보면 만년필을 사 주마.” 아들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미국인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오리사 주민은 괜찮다고 한 행동]

- 젊은 유부녀가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채 혼자 영화를 보러 갔다. 집에 돌아온 아내를 보고 남편이 말했다. “또 한 번 그랬다간 흠씬 두들겨 맞을 줄 알아.” 아내는 또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갔다. 남편은 아내를 흠씬 두들겨 쳤다. (남편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요청함)
- 슬하에 결혼한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둔 남자가 있었다. 남자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대부분 차지했다. 딸은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아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요청함)

[오리사 주민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미국인은 괜찮다고 한 행동]

- 스물 다섯 살 된 아들이 집 안에서 아버지를 이름으로 부른다.
- 어떤 여자가 밥을 지었다. 그녀는 남편 및 오빠와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과 한 상에

앞아 밥을 먹었다. (여자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요청함)

- 나와 한동네에 사는 과부가 일주일에 물고기를 두세 번은 먹는다.
- 한 여자가 대변을 보고 난 후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로 요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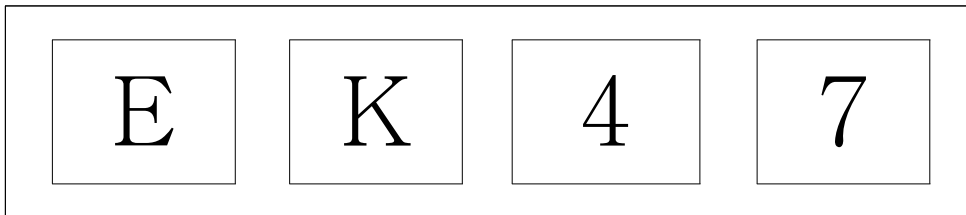
이러한 행동들 중 오리사 주민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미국인은 괜찮다고 한 행동들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공정성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튜리엘의 영역 구분 방식에 따랐을 때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오리사 주민들의 비난은 사회적 규약을 어긴 것에 대한 비난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리사 주민들은 그들이 비난한 행동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음식, 성생활, 의복, 이성간 관계와 관련된 인도의 관습은 대부분이 사회적 규약이 아닌 도덕적 규칙에 대한 쟁점으로 판단되었다. 그들은 개인 중심적 문화의 사회구성원들처럼 피해와 공정성의 차원에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중심적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도덕의 범주와 기준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다. 즉, 슈웨더의 연구에 따르면 ‘피해와 공정성에 기반하여 이성적 추론에 의해 보편적 도덕원리를 도출하는 것’이나 ‘사회적 지식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 중심적 서구 문화의 산물이며, 개인 중심 혹은 사회 중심과 같은 문화적 특성의 차이는 도덕의 범주나 기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유발한다.⁶⁾ 즉, 슈웨더의 연구는 개인의 도덕적 범주 및 기준 설정에서 판

6) 튜리엘은 사회 중심적 문화에서는 사회적 규약과 도덕적 규칙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슈웨더의 분석이 오리사 주민의 사고 세계를 미국인의 시각으로 분석함으로써 생긴 오류라고 비판하며 그들 또한 피해와 공정성에 기반하여 도덕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튜리엘에 따르면 오리사 주민들의 세계관에서는, 물고기란 뜨거운 음식이며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과부가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누군가와 성교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것은 죽은 남편의 영혼에 화를 부른다는 ‘사실적 가정’이 내재되어 있다. 즉, 튜리엘에 따르면 미국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슈웨

단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헤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심리학 연구에는 마굴리스(H. Margolis)의 연구가 있다. 마굴리스는 ‘웨이슨의 네 장의 카드 과제(<그림-1>)’와 같은 실험들을 통해 개인의 판단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추론과 동떨어져 있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그림-1> 웨이슨의 네 장의 카드 과제(Haidt, 2012/2014, p. 96)



‘웨이슨의 네 장의 카드 과제’에서 피험자는 탁자에 놓인 네 장의 카드를 보게 된다. 네 장의 카드는 모두 한쪽에는 알파벳이 쓰여 있고 한쪽에는 숫자가 쓰여 있다. 피험자는 <그림-1>처럼 놓여있는 카드 중 최소한의 카드를 뒤집어서 ‘카드의 한 면에 모음이 적혀있으면 그 뒷면에는 짝수가 적혀 있다.’는 규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청받는다. 논리적으로 추론한다면 E와 7을 뒤집어 보는 것이 맞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E와 4를 뒤집어 본다. 또한 피험자들은 정답을 제시하는 경우와 오답을 제시하는 경우 모두 자신의 답을 얼마든지 설명하며, 추론에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인다(Haidt, 2012/2014, pp. 95-96).

마굴리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인간은 판단이 내려지면, 그 근거를 하나둘 만들어내 그것들이 자신이 내린 판단의 설명이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근거라는 것들은 사실 자신의 판단에 대한 사후 합리화에 지나

더가 상정한 인터뷰 속 상황들에는 해를 입는 희생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Haidt, 2014 참고).

지 않는다.’ 고 해석한다(Haidt, 2012/2014, p. 97). 즉, 개인이 판단을 내릴 때 머릿속에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인지과정이 작동하며, 이는 마굴리스에 따르면 ‘보이는 그대로의 인지과정’ 과 ‘이유를 찾아내는 인지과정’ 으로 구분된다. 마굴리스는 전자를 시각적 인지 또는 기억 환기 등을 지칭하는 ‘하위인지’ 로, 후자를 의식적 추론 활동을 지칭하는 ‘상위인지’ 로 지칭하며, 하위 인지에 의해 신속하게 판단이 이루어지면 상위 인지는 그러한 판단을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마굴리스에 따르면 판단은 직관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추론은 이를 합리화 하는 것이다.

3) 뇌 과학적 기초

헤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영향을 미친 뇌 과학 연구는 다마지오(A. Damasio)의 연구와 그린(J. Greene)의 연구가 있다. 신경학자인 다마지오는 환자들이 뇌의 복내측 전전두엽 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에 손상을 입게되면 감정과 관련된 능력이 거의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환자들은 감정적 반응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성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추론 능력은 온전하였고 IQ에도 결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 들어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러한 환자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거나 아예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도 하였다. 다마지오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 합리적 사고에는 반드시 직감 및 신체의 반응이 필요하며, 복내측 전전두엽 피질은 심사숙고하는 의식의 활동과 직감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다마지오의 연구는 추론을 통한 일상의 판단에 있어서도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Damasio, 2005).

그린은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의 활성화 정도가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적

(personal) 상황’ 과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비인신적(impersonal) 상황’ 에서 감정의 활성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이러한 차이가 행위 선택에 있어서의 차이를 가져오리라 가정한다.

[트롤리(trolley) 딜레마]

당신은 철로 옆에 서서 멈출 수 없는 트롤리가 철로를 따라 달려오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다. 트롤리가 이대로 계속 달린다면 터널에 있어서 트롤리를 피할 수 없는 다섯 명의 인부가 치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선로 전환 레버를 당겨 트롤리의 진행 경로를 옆 선로로 바꾼다면, 트롤리는 선로를 바꾸어 달리게 되고 옆 선로에 있던 인부 한 명이 트롤리에 치어 죽을 것이다. 선로 전환 레버를 당겨야 하는가?

[인도교(footbridge) 딜레마]

당신은 선로 위 육교에 서서 멈출 수 없는 트롤리가 다섯 명의 인부를 향해 돌진하는 광경을 보고 있다. 그 인부들을 죽음에서 구하려면, 당신이 당신 옆에 서 있는 덩치 큰 사람을 선로로 밀어 떨어뜨려야 한다. 덩치 큰 사람을 떨어뜨릴 경우 그 사람은 죽겠지만 트롤리는 멈추게 되어 다섯 명의 인부는 목숨을 건질 수 있다. 덩치 큰 사람을 밀어서 철로로 떨어뜨려야 하는가?

그런은 인도교 딜레마 상황과 같은 인신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정서 반응 및 사회적 인지와 연관된 두뇌 영역의 신경 활동이 증가할 것이며, 트롤리 딜레마 상황과 같은 비인신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고차적 인지와 관련된 두뇌 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실험 결과 실제로 인신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정서 반응과 관련된 세 영역

즉, 후위 대상회 피질(posterior cingulate cortex), 내측 전전두 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 편도체(amygdala)가 활성화 되었으며, 사회적 인지와 연관된 상측두구(superior temporal sulcus)가 활성화 되었다. 또한 비인신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고차적 인지와 연관된 두뇌영역인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와 하측 두정엽(inferior parietal lobe)가 활성화 되었다(Greene, 2001, p. 2106). 또한 트롤리 딜레마의 경우 피험자의 85%가 레버를 당기기로 결정한 반면 인도교 딜레마에서는 12%만이 덩치 큰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기로 결정하였다. 즉, 정서적인 반응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행위 선택이 크게 뒤바뀌는 것이다.

나아가 그린은 피험자들이 각 딜레마 상황에서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그린은 인도교 딜레마에서 덩치 큰 사람을 떨어뜨리기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반응을 눌러 이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신적 침해에 대하여 긍정적 대답이 도출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부정적 대답이 도출되는 시간보다 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비인신적 상황에서는 눌러 이겨야 할 정서적 반응이 없거나 훨씬 약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 사이에 반응 시간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실험 결과는 그린의 가설이 맞음을 증명하였다(Greene, 2001, p. 2017). 그린의 이러한 실험들은 개인이 도덕적 판단을 내림에 있어 정서적 반응에 크게 영향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Ⅲ.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개념과 구조

헤이트(J. Haidt)는 이성적 추론을 강조하는 합리주의 접근이 인간의 도덕적 기능에 대한 현실을 간과하였다고 비판한다. 그는 도덕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은 첫째, ‘도덕적 판단은 어떻게 작동 하는가’ 와 둘째, ‘도덕적 신념과 동기화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라고 제시하며(Haidt, Bjorklund, 2008/2011, p. 103),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통해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는 경험적인 연구들을 통해 첫째, 도덕적 판단은 반사적이고 자동적인 정서적 반응에 의해 촉발된다고 강조한다. 둘째, 헤이트는 도덕적 범주 인식, 기준 설정 및 판단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맥락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합리주의 접근이 강조하는 피해와 공정성 기준 이외에도 개인에 내재된 도덕성의 기반들이 있으며, 이러한 도덕적 기반들은 인간의 도덕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도덕적 기반들을 명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도덕적 판단의 근거 제시를 요청받았을 때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도덕적 당혹감(Moral Dumbfounding)을 드러낸다. 즉 합리주의 접근에서 도덕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도 개인들의 판단에 있어서는 도덕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도덕적 판단의 기제’ 를 밝히고 그에 작용하는 ‘직관의 기원과 발달 기제’ 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헤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검토한다.

1. 직관적 도덕 판단의 기제와 특징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규명하는 도덕적 판단의 기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재차 강조하여야 하는 것은 추론의 개념에 대한 정의이다. 상기한 바 있듯 콜버그를 위시한 합리주의 접근은 이성과 정서가 분리되어 작용한다는 관점을 전제로, ‘이성에 의한’ 추론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판단에 있어 이성과 정서가 반드시 분리되어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관점을 전제하며, 인지(cognition)의 형태로서 추론(reasoning)과 직관(intuition)을 구분한다. 즉,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추론 또한 정서의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을 전제한다.

또 한 가지 강조해야 할 것은 합리주의 접근이 도덕에 대한 정당화를 전제로 피해와 공정성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회적 영역과 구분되는 ‘도덕’의 영역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처방으로 추론 능력의 발달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사람들이 무엇을 도덕으로 받아들이고 도덕적 기능은 어떠한 기제를 통해 이루어 지는가’를 서술하는 사실적 측면의 규명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연구의 방향으로 인해 헤이트가 도덕적 직관, 도덕적 추론에 사용하는 ‘도덕적’이라는 용어는 정당화 가능한 도덕이 아닌, ‘사람들이 도덕으로 인지하는 무언가’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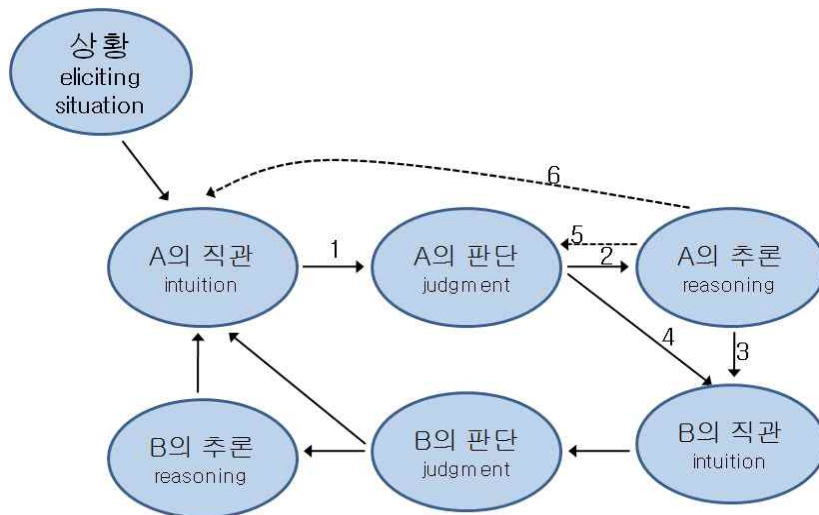
1) 직관적 도덕 판단의 기제

헤이트는 ‘도덕적 판단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도덕적 판단은 신속하고 자동적인 직관의 결과물이며, 그 후에 느리고 의식적인 도덕적 추론이 발생 한다’고 답변한다. 즉,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첫째, 개인의 도덕적 판단이 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둘

째, 추론은 직관적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 합리화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앞서 언급 하였듯,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다루는 도덕적 판단이란, 개인 중심의 서구적 문화의 관점에서 개인적 영역 및 인습적 영역과 구분되는 도덕적 영역에 있어서의 판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기반 하는 슈웨더의 연구 (Shweder, Mahapatra, Miller, 1987)에서 알 수 있듯,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상황을 마주한 개인이 도덕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도덕의 언어로 표현하는 모든 판단을 도덕적 판단이라 규정한다.

이러한 전제들을 통해 헤이트는 인지의 형태로서 직관과 추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능하며 도덕적 판단으로 도출되는지를 <그림-2>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SIM)을 통해 제시한다.

<그림-2> 도덕적 판단에 관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Haidt J, 2001, p. 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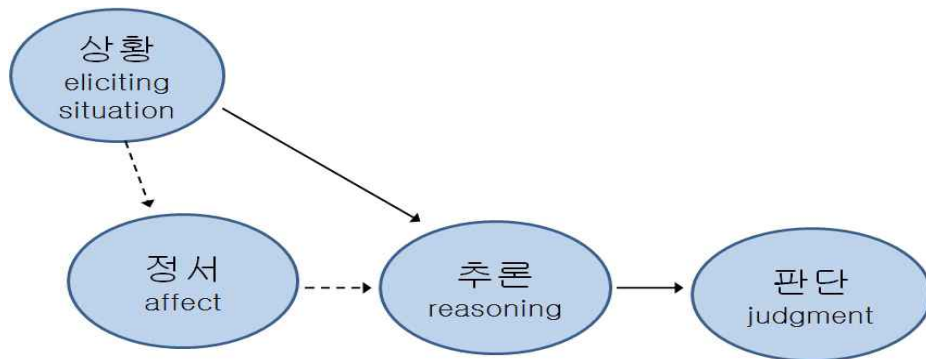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제시하는 도덕적 판단에 있어 직관과 추론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2>에서 (1)은 ‘직관적 판단(the intuitive

judgment link)’ 으로서 아무런 노력 없이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판단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2)는 ‘사후 추론(the post-hoc reasoning link)’ 으로서 직관적 판단을 합리화하고 지지하기 위한 근거를 모색하는 추론의 과정이다. (3)은 ‘추론된 설득(the reasoned persuasion link)’ 으로서 직관적 판단에 대한 사후 추론을 언어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4)는 ‘사회적 설득(the social persuasion link)’ 으로 추론에 대한 명시적인 전달 없이 직관적 판단만으로 타인의 직관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5)는 ‘추론된 판단(the reasoned judgment link)’ 으로서 추론을 통해 초기 직관에 의해 도출된 판단을 수정하는 것이다. (6)은 ‘사적인 반성적 사고(the private reflection link)’ 로서 추론이 초기 직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제시하는 도덕 판단 과정별 특성에 대해서는 아래 이성주의 모델과의 간단한 비교·대조 후 상술하기로 한다.

<그림-3> 도덕적 판단에 관한 이성주의 모델(Haidt J, 2001, p. 815)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이성주의 모델(<그림-3>)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성주의 모델은 이성과 정서가 분리되어 작용한다고 전제하며, 판단은 ‘이성적 추론’ 을 통해 도출되고 정서는

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이성을 통한 추론에 의해 판단이 도출된다는 관점은 이성과 정서의 분리된 작용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 외에도, 도덕적 판단을 ‘개인적 영역 및 사회적 영역과 구분된’ 도덕적 영역에서의 판단으로 간주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2) 직관적 도덕 판단의 특징

도덕적 판단에 관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직관은 추론에 우선한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직관을 통한 판단과 추론을 통한 사후 합리화를 주장한다. 또한 도덕적 판단자는 직관과 모순되는 추론을 통해 판단을 내릴 경우, 겉으로는 추론에 의한 판단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표면아래 직관적 판단이 존재하는 이중적인 태도(dual attitude)를 보인다(Haidt, 2001, p. 819). 둘째,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서적인 영향을 미쳐 직관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논리적이고 타당한 추론도 정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직관적 판단을 수정하도록 설득할 수 없으며,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판단의 근거 제시 없이 판단의 내용만을 전달하더라도 설득에 성공할 수 있다. 셋째, 추론을 통한 판단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있는 것은 아니다. 초기 직관이 약하고 추론 능력이 좋은 경우 추론을 통해 판단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추론을 포함한 사고의 과정에서 새로운 직관이 형성되는 경우에도 판단을 변경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헤이트는 개인들이 추론을 통해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판단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마굴리스의 연구 등에 영향을 받아 첫째, 개인의 도덕적 판단이 직관적으로 이루어지고 둘째, 추론은 최초의 직관적 판단에 대한 반성적 검토와 수정에 기여하기보다는 직관적 판단의 합리화에 기여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그의 제자 스콧 머피와 함께 실험을 진행한다. 그들은 먼저 추론적 판단의 전형으로 삼을 수 있는 콜버그의 하인

츠 딜레마 상황에서의 판단 방식과 직감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상황에서의 판단 방식을 살펴보고, 도덕적 판단⁷⁾이 어떠한 판단 방식을 닮아 있는지를 규명한다(Haidt, Bjorklund, 2008, pp. 197-198).

우선 그는 추론적 판단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인츠 딜레마(아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하인츠는 과연 약을 훔쳐야 하는가) 상황을 제시하고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는 하인츠 딜레마가 피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명과 재산 또는 생명과 법제도와 같은 가치의 대립 지점이 명확하여 합리적인 추론에 의한 판단을 도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예상대로 대다수의 피험자들은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 훌륭한 근거를 제시하였고, 판단의 근거를 찾지 못한 채 판단만을 유지하는 도덕적 당혹감(moral dumbfounding)이 나타나는 비율도 낮았다. 또한 스콧 머피가 여러 합리적인 근거를 대며 피험자의 판단 내용을 수정하려 해보아도 피험자들은 자신이 최초로 선택한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그는 직감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상황을 피험자에게 제시한다. 하나는 ‘바퀴 주스’ 시나리오이며 하나는 ‘영혼 매매 계약’ 시나리오이다.

[바퀴 주스 시나리오]

이 용기 안에는 실험실 자재 납품 회사에서 구입한 살균 처리된 바퀴벌레가 한 마리 들어 있다. 바퀴들이 자란 환경은 깨끗하였으며 만일을 대비해 살균처리도 하였기에 세균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을 수 없다. 바퀴벌레를 주스에 한번 담그겠다. 이 주스를 한 모금 마시겠느냐.

[영혼 매매 계약 시나리오]

문서에는 ‘나 ○○○은 총 2달러를 받고 죽은 후 내 영

7)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다루는 도덕적 판단이란 개인이 도덕의 영역으로 인지하고 도덕의 언어(옳고 그르다, 좋고 나쁘다)로 표현하는 모든 판단을 가리킨다.

혼을 스콧 머피에게 매도함을 이 문서로써 합의한다 ... 이 문서는 심리학 실험의 일부입니다. 이 계약은 어떤 식으로든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 있다. 서명 후에 곧바로 종이를 찢어버려도 되며,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2달러를 받게 된다. 문서에 서명 하겠는가.

바퀴주스를 마시겠다고 한 피험자는 전체의 37퍼센트였고 자발적으로 영혼 매매 문서에 서명한 피험자는 전체의 23퍼센트였다. 피험자 중 다수가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 변변한 이유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스콧 머피의 이의 제기과 설득에 의해 주스를 마시려는 피험자는 10퍼센트 늘었고, 영혼 매매 문서에 서명한 사람은 17퍼센트가 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험자는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최초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였고 여전히 그에 대한 변변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험자들은 이를 도덕적 범주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 당혹감은 보이지 않았다(Haidt, 2012/2014, pp. 84-90).

다음으로 그는 불온하지만 피해자는 없는 상황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하인츠 딜레마 상황에서의 ‘추론적 방식’ 과 바퀴 주스 과제와 영혼 매매 계약 과제에서의 ‘직감적 방식’ 중 어느 방식과 더 유사한 방식으로 도출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불온하지만 피해자는 없는 상황 시나리오 1]

남매기간인 줄리와 마크는 함께 프랑스를 여행하는 중이다. 둘은 모두 대학생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바닷가의 한 오두막집에서 둘이서만 밤을 보내게 되었다. 둘은 이참에 잠자리를 함께해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을 거라고 결정을 내린다. 최소한 서로에게 새로운 경험

은 될 것이다. 줄리는 이미 피임약을 복용한 상태였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마크도 콘돔을 사용한다. 두 사람은 모두 즐겁게 잠자리를 가졌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날 밤 일은 둘만 아는 특별한 비밀로 지키기로 한다. 이제 둘은 서로가 훨씬 가깝게 느껴진다. 마크와 줄리가 섹스를 한 것은 잘못된인가.

[불온하지만 피해자는 없는 상황 시나리오 2]

제니퍼는 병원의 병리 검사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제니퍼는 채식주의자이다. 고기를 먹기 위해 일부러 동물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니퍼는 시체를 소각하는 일을 맡게 된다. 제니퍼는 식용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기를 버리자니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제니퍼는 시체의 살을 한 조각 잘라 집으로 가져온다. 그리고 그것을 요리해서 먹는다. 제니퍼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인가.

이러한 역겨움을 유발하지만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들을 마주한 피험자들은 예상대로 직감을 통한 판단과 유사한 방식으로 판단을 도출하였다. 줄리와 마크가 섹스를 해도 좋다고 응답한 피험자는 전체의 20%였고 제니퍼가 시체의 일부를 먹어도 좋다고 응답한 피험자는 전체의 13%였다.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한 피험자들은 근거 제시를 요구받자 여러 가지 근거들을 찾아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스콧 머피가 그러한 근거들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도 피험자들은 판단을 바꾸지 않았으며 변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도덕적 당혹감(moral dumbfounding)을 드러내었다(Haidt, 2012/2014, pp. 90-93).

이러한 실험을 통해 헤이트는 첫째, 개인의 도덕적 판단이 직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둘째, 추론은 최초의 직관적 판단에 대한 반성적 검토와 수정에 기여하기보다는 판단의 합리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규명한다. 이러한 특징은 <그림-2>에서 (1) ‘직관적 판단(the intuitive judgment link)’ 과 (2) ‘사후 추론(the post-hoc reasoning link)’ 으로 표현된다.

두 번째 특성인 ‘추론은 최초의 직관적 판단에 대한 반성적 검토와 수정에 기여하기보다는 직관적 판단의 합리화에 기여한다.’ 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헤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3) ‘추론된 설득(the reasoned persuasion link)’ 과 (4) ‘사회적 설득(the social persuasion link)’ 은 개인의 추론 또는 판단이 타인의 직관에 영향을 줌으로써 타인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헤이트는 도덕적 판단이란 직관에 의해 도출되며 추론은 직관적 판단을 합리화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에, 추론 또는 판단을 통한 설득은 추론이 아닌 직관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본다.

헤이트는 이와 관련하여, 개인은 일상적 상황에 있어 자신의 판단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소수의 근거만 있다면 이를 반박하는 다수의 근거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판단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쿤(D. Kuhn)의 연구를 인용한다. 쿤에 따르면 개인의 판단은 직관적인 과정을 거쳐 발생되며,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러한 판단을 확증하는 방향으로 개인의 사고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를 반증하는 증거들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직관을 수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일상생활에서 두루 목격된다. 그는 이러한 확증편향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기 위해 여덟 장짜리 카드를 여러 벌 만든다. 각 카드에는 어떤 아이가 초콜릿 케이크 또는 당근 케이크를 먹고 난 후 어떤 일을 겪는지를 보여주는 만화(예를 들어, 음식을 먹은 후 아이가 웃고 있거나 또는 어딘가 아픈 듯 인상을 쓰는 장면)가 그려져 있다. 쿤은 아동과 어른을 대상으로 한 번에 한 벌씩 카드를 보여주었고, 이 ‘증거(여덟 장

의 카드)’ 를 보고 어떤 음식이 아이를 탈나게 만들었는지를 물어본다. 여덟 장의 카드 중에는 당근 케이크가 아이를 탈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가 초콜릿 케이크가 아이를 탈나게 만들었다고 보여주는 카드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피험자로 참가한 어른과 아이 모두 직감적으로 초콜릿 케이크를 배탈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한두 장의 카드를 증거로 내세우며 자신의 판단이 증명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당근 케이크가 배탈의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가 더 많았음에도 이러한 증거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Haidt, 2012/2014, pp. 161-162).

‘추론된 설득’ 은 직관적 판단에 대한 사후 추론을 언어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타인의 직관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며, 타인의 초기 직관을 이끌어 낸 정서적 반응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서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을 필수 요소로 한다. 즉, 추론을 통한 설득은 논리적인 논쟁이 아닌 정서적인 설득을 의미한다. 헤이트는 정서적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에드워드와 폰하이펠의 연구(Edward, Von Hippel, 1995)와 샤비트의 연구(Shavitt, 1990)를 근거로 제시하며 추론을 통한 설득은, 정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설득’ 은 추론이 아닌 판단의 내용만을 전달함으로써 타인의 직관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헤이트에 따르면 사람들은 집단 규준에 적응하기 때문에 친구, 동료, 아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타인의 판단을 가치롭게 여기거나 판단의 주체인 타인을 정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직관이 수정되는 과정이다. 주목할 점은 판단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회적 설득은 근거의 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헤이트는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특정 개인을 가치롭게 여기거나 정서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그 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는 하딘과 히긴스(Hardin, Higgins, 1996)의 연구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Haidt, 2001, pp. 818-819). 즉, 헤이트에 따르면 정서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논리적인 추론으로도 상대를 설득할 수 없으며, 정서적인 영향을 줄 수만 있다

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판단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헤이트는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통해 직관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지고 추론은 이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지만, 드물게 추론에 의해 판단을 내리거나 초기 직관을 변경하는 일이 있다고 언급한다. 그는 (5) ‘추론된 판단(the reasoned judgment link)’ 및 (6) ‘사적인 반성적 사고(the private reflection link)’ 를 제시함으로써 추론에 의한 판단 또는 추론에 의한 직관의 변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사적인 반성적 사고’ 는 직관과 추론이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사고과정 속에서 초기 직관과 모순되는 새로운 직관이 자발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직관적 판단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추론된 판단’ 은 개인이 초기 직관과는 모순되는 추론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과정이다. ‘추론된 판단’ 에서의 추론은 직관적 판단을 합리화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판단의 대안을 모색하며 판단을 이끌어 내는 반성적 역할을 한다. 추론된 판단 부분은 추론이 직관에 영향을 미쳐 판단에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이 아니라 추론을 통해 직접 판단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이다. 헤이트에 따르면 추론된 판단은 초기 직관이 약하며 처리 능력이 높은 경우에 발생한다(Haidt, 2001, p. 819).

이와 관련해서는 추론을 탐구적 추론과 확증적 추론으로 구분한 테틀록(P. Tetlock)의 추론에 대한 정의를 참고할 수 있다. 그의 구분에 따르면 탐구적 추론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러 관점을 공평하게 헤아려 보는’ 역할을 하며, 확증적 추론은 ‘특정 관점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울이는 일방적인 노력’ 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Haidt, 2012/2014, p. 154). 즉, 추론된 판단은 사후 합리화에 실패한 직관적 판단 또는 약한 초기 직관에 의한 확신 없는 판단 등이 ‘탐구적 추론’ 과 ‘확증적 추론’ 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정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추론에 의한 판단이 초기 직관과 강한 갈등을 보이는 경우, 사람들은 추론에 의한 판단을 언

어적으로 표현하면서 직관적인 판단이 여전히 표면 아래 함께 존재하는 이중적 태도(dual attitude)를 취할 수 있다(Haidt, 2001, p. 819). 즉, 판단의 수정을 이끌어내는 추론은 이성적 추론이 아닌 ‘정서와 이성 모두에 의한 추론’ 이어야 한다.

또 다른 사회적 직관주의자인 그린(J. Greene)은 ‘이중 과정 모형(the dual process model theory)’을 제시하며 직관에 의한 판단과 함께 추론에 의한 판단 및 추론에 의한 직관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앞서 살펴본 ‘트롤리 딜레마’와 ‘인도교 딜레마’를 활용한 그린의 fMRI 실험에서, 비인신적인 상황인 트롤리 딜레마의 경우 85%의 피험자가 레버를 당기는 것을 선택하였고 인신적인 상황인 인도교 딜레마의 경우 12%의 피험자만이 덩치 큰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기로 결정하였다(김효은, 2009, p. 66). 이에 대하여 그린은 ‘덩치 큰 사람을 직접 밀어서 떨어뜨리는 인신적 행위는 트롤리 딜레마에서 레버를 당기는 것과 같은 결과로 귀결됨에도, 트롤리 딜레마에서의 행위보다 훨씬 강한 부정적 정서를 갖게 만든다. 판단의 정당화 가능성 여부와 관련 없이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사람을 인도 밑으로 밀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도 출된다.’라고 해석하며 도덕적 판단에 있어 정서적 반응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Greene, 2008, p. 63).

그러나 덧붙여 그린은 ‘우는 아이 딜레마’⁸⁾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의 두뇌 영상과 반응소요시간 자료를 모두 놓고 볼 때, 인신적으로 유해한 행동에 대해 불승인하도록 유도하는 우성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들이 존재하지만⁹⁾ 동시에 강한 결과론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인간의 인지적 심리과정은 이러한 정서적 심리 과정과 경쟁할 수 있기에, 그 해결을 위한 반응시간이 늘어나며 추론과 같은 ‘고차적 인지기능’에 연관

8) 전쟁터에서 가족이 숨어있는 상황에서 갓난아이가 울기 시작하였다. 울음소리로 인해 적에게 적발되게 되면 모두가 몰살당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아이를 죽일 것인가.

9) 인신적으로 유해한 행동을 불승인하도록 유도하는 우성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의 무론적 형태의 판단으로 도출된다.

된 두뇌 영역이 활성화되며(박장호, 2012c, p. 144) 추론에 의해 정서적인 반응을 억누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비인신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배외측 전전두엽과 같은 고차적 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의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사실과 피험자들이 공리주의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론을 통한 판단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헤이트도 팩스톤(J. Paxton)과 그린의 연구(Paxton, Greene, 2012)를 인용하며 추론이 직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팩스톤은 피험자들에게 헤이트가 사용했던 줄리와 마크 남매 이야기를 들려준 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난 후 피험자의 절반에게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논거(예를 들어, 줄리와 마크가 사랑을 나누면 이 세상에는 더 많은 사랑이 존재하게 된다)를 제시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그럴듯한 논거(예를 들어, 근처상간에 대한 반감은 사실 고대에 일어난 일종의 진화적 반응으로, 피임법이 따로 없던 세계에서 선천적 기형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불러일으킨 정서였다. 그러나 줄리와 마크의 경우에는 둘 다 피임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를 제시하며 그들의 판단이 수정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언뜻 보기에 피험자들이 허술한 이유보다 그럴듯한 이유에 더 많이 설득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둘 사이에는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피험자들은 설득의 논거가 그럴듯한가 여부와 관련 없이 설득자의 논거를 반박할 방법을 모색하며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이어서 팩스톤은 방식을 조금 바꾸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는 방금 자신의 직관적 판단을 유지하던 피험자들을 추려 2분간 응답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허술한 논거를 접한 피험자들은 2분의 시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줄리와 마크를 비난하였지만 그럴듯한 논거를 접한 피험자들은 2분이 지난 후에는 줄리와 마크의 행동을 훨씬 더 너그러운 태도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팩스톤은 피험자의 강한 정서적 반응이 가라앉음으로써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조금씩 사라졌고 이에 추론이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해석

한다.

덧붙여 그린과 팩스턴은 도덕적 판단에 있어 추론의 중요한 역할로 ‘정당화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도덕적 직관을 포기하게 하는 역할, 의무론적 도덕원리와 공리주의 도덕원리를 함께 적용하게 만드는 역할, 행동을 지배할 편견을 자동적으로 쫓아갈 때 그 경향성을 억누르게 하는 역할’ 이 있다는 것을 사실적 차원에서 서술한다.

다시 정리하면 헤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인간의 ‘판단 기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규명한다. 첫째, 단위 상황에 있어 개인의 판단은 직관에 의한 도출된다. 추론은 이를 사후 합리화 하는데 사용되며 이러한 특징을 확증 편향이라 한다. 둘째, 타인에 대한 설득은 정서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 셋째, 개인은 드물게 추론을 통해 판단에 이르거나 직관을 변경한다.

2. 도덕적 직관의 기원과 발달 기제

‘도덕적 판단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관심과 함께 헤이트는 ‘도덕적 신념과 동기화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는다. 도덕적 판단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단위 상황’을 대상으로 한다면 도덕적 신념과 동기화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단위 상황을 마주하기 전까지 개인의 내부에 누적되고 내재되어 온 무언가’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살펴본 도덕적 판단의 기제와 함께 앞으로 살펴볼 도덕적 직관의 기원과 발달의 기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체화된 인지(embodied mind)이다. 존슨(M. Johnson)과 레이코프(G. Lakoff)는 인지과학의 세 가지 주요한 발견에 입각해서 체화된 인지 이론을 전개한다. 그들에 따르면 첫째, 마음은 본유적으로 신체화 되어 있다. 인간의 마음은 신체적 경험, 특히 감각 운동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둘째, 인간의 인지는 대부분 무의식적이다. 의식적 사고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모든 사고의 95%는 무의식적 사고이다. 셋째, 우리의 사고는 대부분 은유적(metaphorical)이다. 은유는 신체적 경험에서 나오기에 은유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Varela, 2013). 헤이트에 따르면 도덕적 신념과 동기화는 인간의 마음이 발달되도록 진화(evolution)가 준비해 온 ‘직관’에 내재하며, 문화를 통해 발달된다. 또한 이러한 직관은 덕과 가치의 사회적 구성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Haidt, 2001, p. 826).

본 절에서는 앞서 수행한 도덕적 판단의 기제에 대한 규명을 전제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제시하는 ‘도덕적 직관의 기원과 발달 기제’를 검토한다. 이 절에서의 논의는 개인의 내면에 도덕성의 기반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가를 사실적 측면에서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1) 도덕 기반 이론의 개념

도덕성의 기반과 관련하여 헤이트가 가장 영향을 받은 연구는 앞서 언급한 오리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한 슈웨더(R. Shweder)의 연구이다. 슈웨더는 600명의 피험자 인터뷰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세 가지 도덕의 범주를 추출해 내었다. 슈웨더는 이를 자율성의 윤리, 공동체의 윤리, 신성함의 윤리로 분석하였으며, 각 윤리는 개개인이 무엇을 진정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자율성의 윤리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구·필요·애호를 지닌 자율적 개인이며, 그러한 욕구·필요·애호를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이러한 윤리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인권·자유·정의와 같은 개념이 발달한다.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윤리가 바로 자율성의 윤리이다. 자율성의 윤리는 밀(J. Mill)이나 피터싱어(P. Singer)와 같은 공리주의자와 칸트(I. Kant)나 콜버그(L. Kohlberg)와 같은 의무론자 모두가 강조한다. 그러나 서양의 일상적인 사회 밖으로 눈을 돌리면 사람들이 쓰는 도덕적 언어에는 두 가지가 더 있음을 알게 된다. 하나는 공동체의 윤리이며 하나는 신성함의 윤리이다(Haidt, 2012/2014, pp. 193-195).

공동체의 윤리는 개인을 자신보다 더 큰 실체 즉, 가족·팀·회사·부족·나라 등의 구성원으로 상정한다. 자신보다 큰 이 실체들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총합을 넘어선다. 공동체의 윤리를 공유하는 문화에서는 이러한 실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며, 실체 내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할당된 역할을 수행해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에 공동체의 윤리를 공유하는 문화에서는 의무·위계질서·공경·명성·애국심 등의 도덕적 개념이 발달한다. 이러한 문화에서 개인주의적인 관념을 갖고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거나 자기만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사회제도와 공동의 실체를 허물어뜨리는 이기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비친다(Haidt, 2012/2014, pp. 195-196).

신성함의 윤리에 바탕이 되는 생각은 ‘사람이란 한 순간 머물다 가는 존재로 몸은 그릇이고 그 안에는 신성한 영혼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가 강조되는 문화에서는 인간을 단순히 의식을 좀 더 갖춘 동물이 아닌 신의 아들이다. 따라서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남자가 생닭을 가져다 성행위를 할 경우, 설령 그 일이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고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는 잘못된 행동이다. 이는 자신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창조주를 욕되게 하고 우주의 신성한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거룩함과 죄악, 순결과 오염, 고결과 타락 등의 개념을 강조한다(Haidt, 2012/2014, pp. 196-197).

헤이트는 슈웨더의 영향을 받아 도덕적 일원론 즉, 한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도덕의 전체 체계를 세우려는 노력을 지양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일원론을 기초로 한 사회는 구성원 대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도덕적 원칙들을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곳이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그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도덕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다양한 인지적 틀(frame)을 서술적 방식을 활용하여 밝히고자 한다.

그는 1970년대 이래 뇌에 대한 이해가 발전함으로써 어떤 특징이 인간 안에 내장되어 있거나 보편적이지는 않아도 선천적이라는 사실이 규명되었음을 언급하며, 각 문화가 도덕에 대한 공유된 관점을 만들어 낼 때 기반하는 선천적으로 내재된 도덕적 기반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헤이트는 진화론적 설명 없이는 도덕성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진다. 그는 환원주의를 경계하며, 마커스(G. Marcus)의 말을 인용하여 그의 진화론적 관점을 제시한다. 마커스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자연에서 받은 뇌는 이미 상당히 복잡한 상태이지만, 그 안에 이미 다 갖추어져 있어 고정불변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보다 채 갖추지지

않아 융통성이 있고 또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제일 좋다.’ 라고 지적한다. 그는 또한 중전의 진화심리학 등이 뇌 안에 ‘내장된 설계도’가 있다고 본 것과 달리 인간의 뇌를 한편의 책으로 비유하며, ‘엄마의 배 속에 있는 동안 유전자가 초고를 쓰며, 따라서 태어날 당시 책에는 어떤 장도 완성이 되어있지 않고 일부는 아예 개요만 대략 정해져 있다. 이는 아동기를 거치며 내용이 채워진다. 또한 각 장이 완전히 빈 여백은 아니기에 사회가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써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서술한다. 이러한 비유를 차용하자면 책(인간의 뇌)은 장(틀, frame)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은 초고(선천적으로 내재한 상황에 대한 인지, 감정적 반응 등에 대한 틀) 또는 작성중인 원고(발달 과정을 통해 형성중인 상황에 대한 인지, 감정적 반응, 판단 및 행위 양식 등에 대한 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Haidt, 2012/2014, pp. 246-247).

헤이트는 이러한 ‘선천적으로 내재한 상황에 대한 인지, 감정적 반응 등에 대한 틀’을 서술하기 위해 즉, 진화론적으로 내재된 도덕성의 기반을 추출함에 있어 인지인류학자인 허슈펠트(L. Hirschfeld)의 ‘모듈성(modularity)’ 개념을 차용한다. 모듈이란 모든 동물이 뇌 속에 갖고 있는 조그만 스위치 같은 것으로, 특정 생태적 지위에서 생존에 중요한 어떤 패턴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이러한 스위치가 켜진다. 그러한 패턴이 감지될 경우 모듈은 신호를 보내 동물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과정에서 적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모듈을 자극하는 동인은 ‘본래적(original) 동인’과 ‘통용적(current) 동인’ 두 가지가 있다. 본래적 동인은 모듈이 설계 될 당시의 목표물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뱀 감지 모듈의 경우 뱀의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 통용적 동인은 우연하게라도 모듈을 자극하게 되는 이 세상 모든 사물을 말한다. 뱀 감지 모듈을 예로 들면 여기에는 실제 뱀, 장난감 뱀, 구부러진 막대기, 두꺼운 밧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본래적 동인 또는 통용적 동인은 그에 해당하는 적응 도전 과제와 반응적 감정 등을 수반한다(Haidt, 2012/2014, pp. 234-237).

헤이트는 도덕성의 기반들을 추출해내기 위해, 우선 진화 심리학자들의 저작 속에서 사회생활의 적응 도전 과제로 자주 언급되는 다섯 가지를 찾아낸다. 이는 ‘무력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 친족 이외의 사람과 협력하여 호혜성에서 이득을 얻는 것, 다른 이들과 연합을 구성하여 타 연합과 경쟁하는 것, 협상을 통해 지위 서열을 확보하는 것, 자신의 친족 집단 내에 기생충이나 병원균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헤이트는 이러한 도전과제가 수십 수백만 년 동안 반복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연선택은 느린 이성을 사용하는 이들 보다는 신속하게 직관을 통한 인지모듈을 사용하는 이를 더 선호했을 것이라 가정한다. 다섯 가지 도전과제를 통해 헤이트는 이들의 본래적 동인 즉, 그러한 인지 모듈이 본래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적 패턴과 그러한 동인에 대한 감정적 반응양식을 추출한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도전과제의 통용적 동인 즉, 현대 서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극하는 사회적 패턴을 추출하며,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사람들이 관련시키는 덕목을 추출한다. 그는 동인과 그에 대한 적응 도전 과제 및 감정적 반응, 그리고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는 덕목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한다. 이러한 세트는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감정적이고 직관적으로 반응과 평가를 이끌어 낸다. 그는 이러한 세트를 선천적으로 내재되고 후천적으로 발달된 도덕에 대한 틀(Frame) 즉, 도덕 기반(Moral Foundation)이라 명명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을 그는 ‘도덕 기반 이론(Moral Foundation Theory)’이라 불렀다(Haidt, 2012/2014, pp. 234-241).

<표-2>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출한 여섯 가지 도덕성 기반에 대한 표이다. 진화 심리학자들의 저작에 등장하는 적응 도전 과제를 통해 최초로 추출한 도덕성 기반은 다섯 가지였으나 이후의 연구를 통해 자유/압제 기반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도덕 기반 이론은 인간의 도덕적 기반을 규명해 가는 하나의 도구이며 그 내용은 고정적이기 보다는 추가와 수정이 가능하도록 열려있다.

<표-2> 여섯 가지 도덕성 기반(Haidt, 2012/2014, p. 238)

	배려/피해	공정성/ 부정	충성심/ 배신
적응 도전 과제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살핌	쌍방향의 주고받기 관계에서 이득을 얻음	단결력 있는 연합을 구성함
본래적 동인	자식이 고통스러워하거나 무언가 필요함을 표현함	부정행위, 협동, 사기	집단에 대한 위협이나 도전
통용적 동인	새끼 바다표범, 귀여운 캐릭터	결혼 생활에서의 정절, 고장난 자동판매기	스포츠 팀, 국가
특징적 감정	동정심	분노, 감사, 죄책감	집단에 대한 금지, 배신자에 대한 격분
관련 덕목	배려, 친절	공정성, 정의, 신뢰	충성심, 애국심, 자기희생

	권위/전복	고귀함/ 추함	자유/압제
적응 도전 과제	위계 서열 내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다짐	오염을 피함	부당한 압제에 저항함
본래적 동인	지배와 복종의 표시	쓰레기, 병에 걸린 사람	불한당, 독재자
통용적 동인	상사, 존경 받는 전문가	금기 사상 (공산주의, 인종차별)	부당하게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
특징적 감정	존경, 두려움	구토감	분노, 의분
관련 덕목	복종, 경의	절제, 순결, 경건, 청결	자유, 평등

2) 도덕적 직관의 기원

헤이트는 햄린(K. Hamlin), 윈(K. Wynn), 블룸(P. Bloom)의 실험을 인용하며 아이들이 사회적 세계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이해 능력을 갖추고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실험을 인용하기에 앞서 헤이트는 생후 2개월 된 영아들이 무언가가 자신의 예상대로 일어날 때보다 어딘가 놀라운 부분이 있을 때 더 오랫동안 쳐다보는 경향이 있다는 발달 심리학의 발견을 언급한다.

햄린, 윈, 블룸은 6에서 10개월의 영아들을 데려다 놓고 진행한 ‘오르기쟁이’ 인형극 실험을 진행한다. ‘오르기쟁이’라는 인형이 끙끙대며 언덕을 올라가는 동안 두 개의 인형을 더 등장시켜 한 인형은 오르기쟁이 인형을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한 인형은 오르기쟁이 인형을 비탈로 밀어 언덕 아래로 구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몇 분이 지난 후 실험자들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형극을 보여주었다. 이는 오르기쟁이 인형이 도우미 인형과 방해꾼 인형을 번갈아 쳐다보다 결국 방해꾼 인형과 놀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아이들은 그 광경을 오르기쟁이 인형이 도우미 인형과 놀기로 했을 때 보다 더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실험의 막바지에 연구진은 도우미 인형과 방해꾼 인형을 쟁반에 담아 아이들의 앞에 놓아두었고 아이들은 도우미 인형에게 훨씬 더 많이 손을 뻗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개개인을 평가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능력은 학습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Haidt, 2012/2014, pp. 132-134).

이러한 실험의 영향을 받아 헤이트는 도덕성의 기반이 ‘경험 이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도덕성의 기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는지를 진화의 차원에서 밝히고자 한다. 헤이트에 따르면 도덕성의 첫 번째 기반은 배려/피해 기반이다. 이는 인간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배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배려는 상당부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고 문화의 가르침이나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배려 기반의 본래적 동인이다. 이러한 본래적 동인에 대한 감정은 새끼 바다표범에 대한 폭행과 같은 통용적 동인에 대한 감정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감정은 생면부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나 친절과 같은 덕목으로 발현되곤 한다(Haidt, 2012/2014, pp. 248-254).

도덕성의 두 번째 기반은 공정성/부정 기반이다. 트리버스(R. Trivers)의 호혜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 이론에 따르면 이타주의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종(種)은 따로 있다. 이런 종의 개체들은 다른 개체와의 예전 상호작용을 기억 할 수 있고, 그 기억에 따라 추후 자신에게 보답할 가능성이 높은 개체에게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트리버스에 따르면, 인간은 진화를 통해 일련의 도덕적 감정을 발달시켰고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되갚기(tit-for-tat) 게임을 한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보통 누구에게든 호의를 보이지만 그렇게 첫 만남이 지나고부터는 사람을 고르게 되어 있다. 나에게 잘 해준 사람과는 힘을 합치고 나를 이용한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적응과제는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남에게 착취당하기 십상이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그들과 한 번씩밖에 일하지 못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그와는 파이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득을 가장 많이 챙길 수 있던 사람은 도덕적 감정에 따라 되갚기 게임을 한 사람이었다. 즉, 공정성 모듈의 본래적 동인은 사람들이 보이는 협조적 태도 또는 이기적 태도이다. 이러한 공정성 모듈은 정치적으로 좌파에 있어 평등과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나며 우파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으로 드러난다(Haidt, 2012/2014, pp. 254-258).

도덕성의 세 번째 기반은 충성심/배신 기반이다. 셰리프(M. Sherif)는 22명의 아이들을 두 부족으로 나누어 캠핑을 하며 아이들의 모습을 관

찰하는 실험을 통해 충성심의 모듈이 개인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바우마이스터와 좀머의 연구(Baumeister, Sommer, 1997)와 맥코비의 연구(Maccoby, 1998)에 따르면 남자 아이는 팀이나 연합에 충성하는 반면, 여자 아이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충성하는 경향이 있다. 라이벌 집단의 도전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연합을 구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일은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충성심 기반은, 연합 구성과 단결이라는 적응 도전 과제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온 여러 가지 준비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통용적 동인은 스포츠나 국가를 향한다. 충성스러운 팀원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만큼 반역자는 악독한 존재로 취급받고 증오를 받는다(Haidt, 2012/2014, pp. 259-265).

도덕성의 네 번째 기반은 권위/전복 기반이다. 권위 기반의 적응 도전 과제는 사회의 질서유지 및 혼란 방지와 같은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위계’에 대한 복종이다. 헤이트는 권위 기반을 설명하기 위해, 권위와 권력을 구분하며 ‘권위 서열’ 관계에 대하여 설명한 피스크(Fiske, A. P, 1991)를 인용한다. 피스크는 권위 서열에 대하여 ‘권위 서열 관계 안의 사람들은 일직선의 위계질서 안에서 서로 균등하다고 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랫사람은 예우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윗사람은 아랫사람보다 우선권을 가지되 그들을 목자처럼 돌본다. 이 관계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군대의 위계질서, 조상숭배, 일신교의 도덕규범이 있다. 권위서열 관계는 강압적 권력보다는 정당한 비대칭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된다. 따라서 이 관계에 본래부터 착취의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권위 기반의 본래적 동인에는, 어떤 이가 상위 서열인지 혹은 하위 서열인지 드러내는 외관과 행동 패턴이 포함된다. 권위 기반에 대한 통용적 동인으로는 정당한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복종·불복종·존경·불신·공손함·반항 등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Haidt, 2012/2014, pp. 265-271).

도덕성의 다섯 번째 기반은 고귀함/추함 기반이다. 이는 잡식동물로서

의 딜레마나 병원체와 기생충에 대한 회피와 같은 도전 과제를 통해 형성된다. 이에 대한 본래적 동인은 쓰레기, 병에 걸린 사람 등이며 통용적 동인으로는 공산주의, 인종차별, 신성모독 등의 금기 사상 등이 있다. 이는 혐오감과 구토감 등으로 드러나며, 절제·순결·경건·청결 등의 덕목으로 나타난다(Haidt, 2012/2014, pp. 272-284).

도덕성의 여섯 번째 기반은 자유/압제 기반이다. 자유 기반은 권위 기반과 부딪힌다. 자유기반은 상위 위계인 존재가 하위 위계의 존재들에게 압제를 가하는 상황에서의 의분에서 비롯된다. 자유 기반의 본래적 동인에는 불한당, 독재자가 있으며, 통용적 동인에는 부당하게 자유를 구속하는 듯 보이는 거의 모든 것이 해당된다. 이에 대한 감정은 분노이며, 관련 덕목은 자유와 평등이다(Haidt, 2012/2014, pp. 311-322).

3) 도덕적 직관의 발달 기제

도덕적 직관들이 일부 선천적이라 하더라도 아동이 결국 도덕성을 획득하는 것은 문화 혹은 집단의 독특한 도덕성을 접하고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헤이트는 이러한 과정을, 도덕성을 형성하는 도덕적 직관들을 문화적으로 수정하고, 강화하며, 억제하는 것으로 본다. 즉 도덕 발달은 직관의 성숙과 문화적 조형화의 문제이다. 이는 직관의 선택적인 상실(selective loss of intuition)과 관습 복합체에의 몰두(immersion in custom complexes) 그리고 또래집단 사회화(peer socializ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첫째, 직관의 선택적인 상실이란 개인이 소속된 문화에서 강조하는 도덕적 기반에 집중함으로써, 강조되지 않는 기반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 상실되어 가는 기제를 의미한다. 헤이트는 히긴스의 연구(E. Higgins, 1996)를 인용하며 문화적으로 강조되는 윤리와 관련된 직관은 더 예민하고 만성적으로 나타나며 강조되지 않는 윤리와 관련된 직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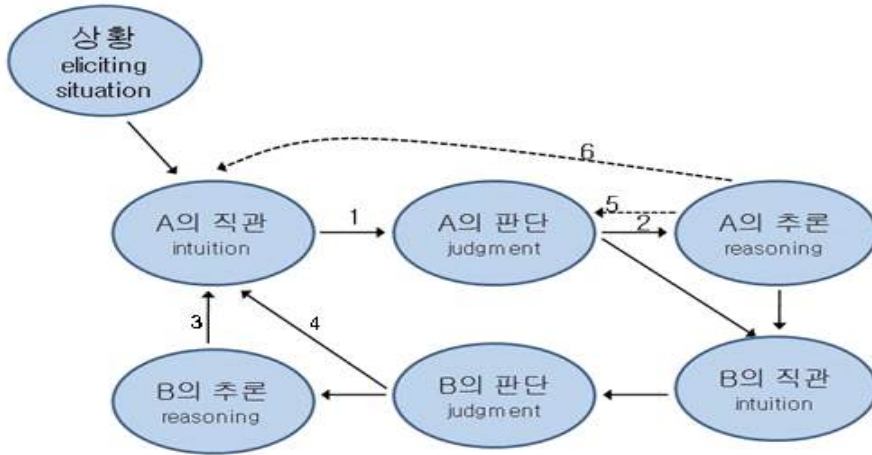
더 약해지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Haidt, 2001, p. 827).

둘째는 관습 복합체에의 몰두이다. 관습복합체란 ‘관습적인 실제, 신념, 가치, 제재, 규칙, 동인 및 이와 관계된 충족’을 의미한다(Whiting, Child, 1953). 이러한 관습복합체에 대한 몰두는 아동의 도덕적 사회화에서 발견된다. 인도 오리사 지역의 아동들은 순수성으로 구조화된 신체와 공간을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며, 그들은 순결과 불순에 대한 민감한 감각이 발달한다. 이러한 직관은 아동들에 내재되며, 추후 아동들이 신성함과 관련된 윤리에 대한 인지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면 이러한 직관은 합리화의 과정을 거쳐 더욱 강화된다(Haidt, 2001, p. 827).

세 번째는 또래집단 사회화이다. 헤이트는 인간을, 주변의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형성해가는 사회적 존재로 본다. 그는 해리스(Harris, 1995)를 인용하며 아동의 도덕 판단 형성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도덕 판단은 또래 집단의 도덕 판단임을 강조한다. 해리스에 따르면 아동들에게는 또래 집단에서 결속을 다지고 신망을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기 후기의 아동과 청소년의 과업은 부모님처럼 되어가는 것이 아닌 또래 집단에 적응해가는 것이 된다(Haidt, 2001, pp. 827-828).

이러한 도덕적 직관의 발달 과정은 헤이트의 도덕적 판단에 대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도식을 통해 추측이 가능하다. <그림-2>에서 A가 B의 직관에 영향을 주는 방식과 동일하게 B가 A에게 피드백을 하며 직관에 영향을 준다고 상정하며 이러한 부분에 집중하면 도덕적 직관의 발달 도식이 도출된다(<그림-4>). 주의할 것은 도덕적 직관의 발달이라는 표현에서 사용하는 ‘발달’이라는 용어는 합리주의 접근의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과 같은 표현에서 사용되는 보편타당성을 향한 발달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도덕적 직관의 발달에서 사용되는 발달이라는 용어는 문화적 조형화 정도와 관련된 표현이다.

<그림-4> 도덕적 직관의 발달에 관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



<그림-4>의 (3) ‘추론된 설득’ 과 (4) ‘사회적 설득’ 은 부모와의 상호관계 또는 또래와의 상호관계 등을 통해 직관에 영향을 받고 직관을 문화적으로 조형화하는 과정이다. 이는 합리주의 접근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합리주의 접근에서는 추론을 강조하며 (5) ‘추론된 판단’ 과 (6) ‘사적인 반성적 사고’ 를 강조한다. 합리주의의 관점에서는, 타인의 추론과 판단이 개인의 추론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개인은 구성주의적 방식으로 도덕성을 형성해 간다.

IV.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콜버그를 위시한 합리주의 접근의 도덕 교육은 인간의 도덕적 지향점을 설정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즉 합리주의 접근의 도덕 교육은 학생들에게 목표를 제시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학생들이 제시된 목표를 벗어나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다. 이는 합리주의 접근의 도덕 교육이 인간의 도덕 기능에 대한 사실적 측면을 파악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처방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헤이트의 연구는 인간의 도덕 기능에 대한 사실적 차원의 규명을 시도한다. 도덕 기능의 사실적 측면에 대한 서술은 도덕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기에 헤이트의 연구는 인간의 도덕 기능에 대한 사실을 타당하게 서술하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하며, 그의 연구가 도덕 교육의 당위적 목표를 타당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또는 도덕 교육의 방법에 대한 훌륭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본 장에서는 헤이트의 연구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살피고 이를 통해 헤이트의 규명들이 최근의 통합적 도덕 발달 이론들에 있어 갖는 시사점을 모색한 후 헤이트의 규명들이 교육의 실제에 있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계와 의의를 모색하는 작업은 헤이트와 같이 뇌 과학적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도덕적 판단의 과정을 규명한 그린(J. Greene)과 나바에즈(D. Narvaez)의 연구들을 참고할 것이다. 이를 통해 헤이트의 연구가 규명한 인간의 도덕기능에 대한 사실이 갖는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헤이트의 규명들을 통해 도덕 발달 이론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은 도덕 행동의 산출에 작용하는 요소들을 도출해 낸 레스트(J. Rest)의 4구성 요소 모델(the Four Component Model), 도덕

적 정체성을 매개로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위를 연결시키고자 한 블라지(A. Blasi)의 도덕적 정체성 이론(Moral Identity Theory)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교육의 실제에 있어 시사점을 모색하는 작업은 헤이트의 연구가 갖는 의의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1.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대한 평가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단위 상황에서의 도덕적 판단의 기제’와 도덕적 신념의 근원인 ‘도덕적 직관의 기원과 발달 기제’를 사실적인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다. 상기하였듯 도덕 기능의 사실적 측면에 대한 서술은 도덕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기에 헤이트의 연구는 인간의 도덕 기능에 대한 사실을 타당하게 서술하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규명한 인간 도덕 기능의 사실들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는지를 중심으로 헤이트의 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의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규명한 점들은 도덕에 대한 당위적 측면 또는 처방적 측면으로서 의의를 갖기 보다는 교육에 있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인간의 도덕 기능에 대한 사실적 측면의 규명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그린(J. Greene)과 나바에츠(D. Narvaez)의 비판처럼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도덕적 기능의 사실적 측면에 대한 규명에 있어 부분적인 성공만을 거두었기에,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인간 도덕 기능을 잘못 이해하게 될 위험성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기존의 합리주의 접근과 달리 도덕적 판단에 있어 직관의 영향력 및 문화의 영향력 등을 규명하였고 이성적 추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도덕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보완하는데 기여한다. 헤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교육에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도덕적 판단이 정서의 영향에 크게 영

향 받으며 직관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강하게 형성된 직관이 사후에 수정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설득에 있어 정서적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아동기의 도덕성 형성이 개인의 도덕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청소년기의 도덕 교육이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개인이 모듈의 문화적 조형화를 통해 형성된 직관에 의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내려진 판단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초기 직관에 작용된 정서적 반응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서적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직관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람들은 추론에 의한 판단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면서 직관적인 판단이 여전히 표면 아래 존재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Haidt, 2001, p. 819). 미루어 볼 때 아동기에 누적된 경험들을 통해 도덕¹⁰⁾적인 직관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기에 도덕 교육을 통해 도덕성의 발달을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게 된다. 특히 이성적 추론을 강조하는 도덕 교육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도덕성의 발달을 이끌어내기 어려우며, 이성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모두 고려된 추론 중심 교육을 통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정서적 반응을 상쇄할 만한 정서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한 도덕성의 발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반면 아동기에 도덕적인 직관이 제대로 형성된 경우 청소년기에 추론을 통한 교육이 직관의 사후 합리화 정도를 강화하고 이는 도덕적 직관의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아동기의 도덕적 직관 형성과 청소년기의 교육의 영향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10) 사람들이 도덕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합리주의 접근에서 강조하는 정당화된 도덕을 의미한다.

<표-3> 아동기의 도덕적 직관 형성이 추론을 통한 교육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의 직관 형성 유형	청소년기에 추론을 통한 교육의 영향
도덕적 직관이 형성된 경우	직관의 사후 합리화에 기여하여 도덕적 직관이 강화됨
비도덕적 직관이 약하게 형성된 경우	정서적 설득으로 작용하여 비도덕적 직관의 억제 및 도덕적 직관으로의 수정에 기여
비도덕적 직관이 강하게 형성된 경우	초기의 정서적 반응을 상쇄하지 못하는 한 도덕적 판단을 이야기하며 비도덕적 판단이 표면아래 존재하는 이중적 태도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이성적 추론을 강조하는 교육에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이성적 추론을 강조하는 합리주의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도덕적 귀감’ 등을 설명하는데 기여하며(Walker, Friner, 2009), 정서적 영향을 주는 수업 방식들을 청소년기 도덕 교육에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도덕적 판단이 정서적 반응에 의해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며 추론은 많은 경우 그러한 직관적 판단을 합리화 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도덕 교육이 추론 능력의 신장 그 자체를 강조하기 보다는 반성적 추론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헤이트의 관점을 차용하자면, 개인은 정서적 반응에 의해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하기에, 교육이 추론 그 자체만을 강조한다면 추론 능력의 발달이 합리화를 통한 자기기만에 기여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에 추론에 대한 강조는 ‘반성적’ 추론에 대한 강조여야 한다. 즉, 헤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개인들의 도덕 기능에 대한 현실을 규명함으로써, 도덕 교육이 학생들을 반성적 추론으로 이끄는 실

효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한계

헤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갖는 첫 번째 한계는 추론의 역할을 과소평가 하였다는 것이다. 나바에츠는 헤이트의 주장에 대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적 판단에 있어 직관적인 과정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심사숙고에 의한 추론적 과정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비판한다(Narvaez, 2008, p. 235). 나바에츠는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직관은 의식적인 추론과 우선순위를 번갈아가며 상호 작용한다고 주장하는데, 사회적 직관주의자인 그린(J. Greene) 또한 그녀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그린은 ‘실험실의 통제 상황을 벗어나면 도덕적 추론이 강력한 사회적 위력을 발휘한다는 증거들이 있다’ 고 주장한다(Greene, 2008).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린과 나바에츠가 강조하는 추론은 합리주의 접근이 강조하는 ‘이성을 통한 추론’과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직관주의의 관점에서 대안 모색과 동기화 등에 있어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며, 인지의 형태로서 직관과 구분되는 추론을 강조한다.

헤이트가 추론의 영향을 과소평가 한 것은 그의 연구가 일상적 판단의 ‘한정된 범주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상의 다양한 도덕 판단 사례들 중, 강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사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3자의 판단 및 행위’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방식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도덕적 판단이 직관적으로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도덕 기반 이론을 차용하자면 피험자의 판단은 타인의 판단 또는 행위에 대한 정서적인 접근-회피 기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개인이 실험실 내의 통제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복잡성을 갖는 등 실험실의 상황과 차이가

있는데,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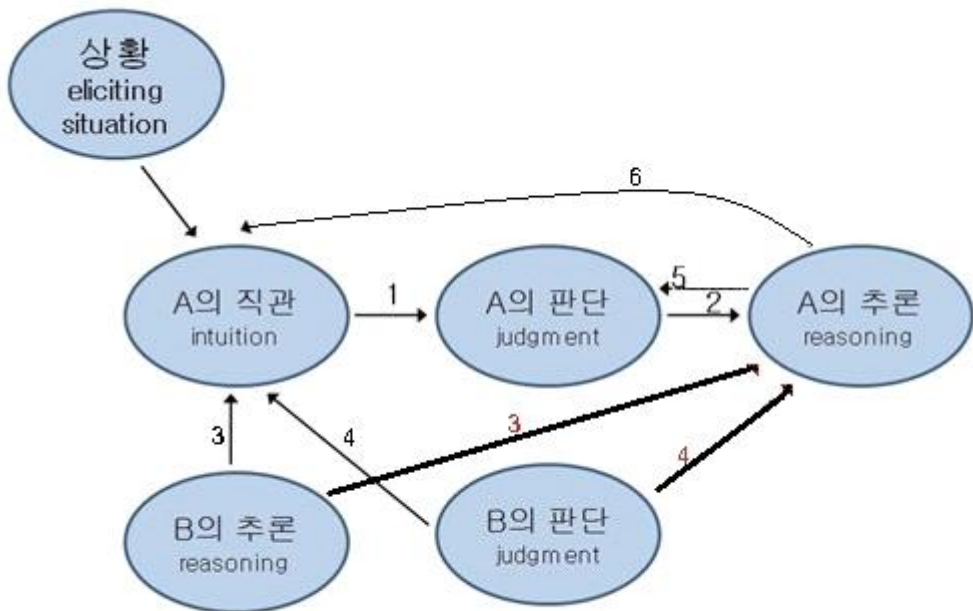
첫째, 현실에서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헤이트가 실험에서 사용한 사례에 대한 반응만큼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가 추론을 통한 판단이 드물지만 일어난다고 지적하며 인용한 팩스틴과 그린의 실험(Paxton, Greene, 2012)에 사용된 사례는 강력한 부정적 정서 반응을 이끌어내는 사례임에도 2분 만에 정서적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정서적 반응의 정도가 약한 일상에서의 수많은 상황들에 있어서 추론의 영향력은 더욱 간과할 수 없다.

둘째, 현실에서의 복잡한 도덕적 상황은 타인의 판단 및 행위에 대한 접근-회피 기제가 발현됨과 동시에, 자신의 판단 및 행위가 타인에게 가져올 접근-회피 기제의 발현 대한 고려 등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특히 관습적으로 한 가지로 해석되는 상황이 아닌 다양한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에 있어 그러하다. 만일 상황에 관련된 대상 주체가 다양하고 그 관계가 복잡하다면 판단과 행위는 더더욱 직관적 과정에 의해 순간적이고 자동적으로 도출되기 어렵다. 나바에츠는 이와 관련하여 도덕적 의사결정에는 개인적인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는 것(B. Williams),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H. Frankfurt), 대안들 중에서 어느 행동 선택이 최선인가를 심사숙고 하는 것(J. Rawls), 다양한 고려들을 조화시키는 것(J. Wallace), 선택된 의사결정과 행동을 평가하는 것(L. Blum) 등이 포함되며 이는 추론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Narvaez, 2008, p. 234).

이러한 헤이트의 이론은 ‘개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도덕적 기능을 하는가’에 대하여 불완전한 설명을 제시함으로써(<그림-2>),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도덕성 발달의 기제(<그림-4>)를 온전히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다. 헤이트가 제시한 도덕성 발달의 기제와 관련하여 나바에츠는 ‘아동의 도덕 발달이 시간에 따른 도덕 모듈

(moral module)의 성숙과 문화적 환경에의 지배적 영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헤이트의 입장은 아동의 도덕 발달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본 것이라 비판하며, 개인의 도덕 발달은 경험을 통한 인지-정서-행동 도식의 능동적 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지적한다(Narvaez, 2008, pp. 236-237). 이러한 나바에츠의 지적을 받아들여 도덕적 판단에 있어 개인의 직관과 추론 모두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그림-5>처럼 도덕성의 발달 도식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5> 도덕성 발달 모델



<그림-5> 도덕성 발달 모델은 정서적 직관과 정서적 추론을 모두 강조한 모델이다. 이는 도덕적 직관의 발달에 관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 <그림-4>에 수정을 가한 모델이다. 첫째, 추론에 의하여 판단을 도출하는 5번 과정과 추론을 포함한 사고의 과정에서 새로운 직관이 도출되는

6번 과정이 헤이트가 주장하듯이 드문 경우가 아니라는 나바에츠와 그린의 지적을 반영하여 점선을 실선으로 수정하였다. 둘째, 타인의 추론에 의해 탐구적 추론과 확증적 추론에 영향을 받는 굵은 화살표 3번 과정과 타인의 판단에 의해 탐구적 추론과 확증적 추론에 영향을 받는 굵은 화살표 4번을 추가하였다. 이는 개인 내적으로 5번 과정 또는 6번 과정으로 이어진다.

헤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갖는 두 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도덕의 범주를 협소하게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헤이트는 사람들이 도덕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가를 사실적 측면에서 서술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하였고(Haidt, 2012/2014, p. 482), 합리주의 접근의 도덕 일원론적 관점을 비판하며 도덕의 다양성 측면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문화 간 비교를 활용하였다. 이는 도덕에 대한 문화의 영향을 보여주고 도덕적 기반의 다양성을 규명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사람들이 인식하는 도덕’을 문화에 종속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헤이트는 도덕적 판단을 문화 혹은 하위 문화에 의해 의무적인 것으로 지지되는 일련의 덕에 대한 존경심으로 형성되는, ‘행동이나 사람의 인격에 대한 평가(옳고 그름)’라고 정의하며(Haidt, 2001, p. 817)¹¹⁾ 동일한 문화 내에서 나타나는 도덕성의 차이를 개인별 특성에 기인한 ‘문화화 된 정도’의 차이로 본다(Haidt, 2008, pp. 210-211). 그러나 개인들은 추론과 반성적 사고를 통해 문화적 맥락을 넘어서는 도덕적 판단을 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관습적 가치들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개선하고자 하기도 한다. 헤이트는 사람들의 도덕에 관한 메타적이고 반성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간과하였다.

11) 헤이트(Haidt, 2001:817)는 평가를 ‘good vs bad’로 표현하였다. 이를 옳고 그름(right vs wrong)으로 표현하지 않고 좋고 나쁨으로 기술한 것은 헤이트가 도덕적 판단을 정서에 기반한 접근-회피 기제에 의존시킨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헤이트의 실험들에서 개인이 도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좋고 나쁨의 정서를 ‘옳고 그름’으로 표현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이를 옳고 그름으로 번역하였다. 강인구(강인구, 2001:35-36)도 이를 옳고 그름으로 번역하였다.

헤이트의 도덕적 판단에 대한 사실적 기술은 도덕적 판단 기제의 일부만을 다룸으로써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을 규명하고자 한 애초의 목적을 부분적으로만 달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헤이트는 도덕 발달을 온전히 설명하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문화적 맥락을 넘어서서 보편적 도덕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2. 도덕 발달 이론에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헤이트의 연구는 일상의 도덕 기능에 있어 추론이 차지하는 역할을 간과하였고 인간의 메타적인 사고 가능성을 간과하였다. 즉, 그의 연구는 인간의 도덕 기능의 사실적 측면을 온전히 서술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인간 삶의 과정들이 많은 비중으로 직관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직관이 사회적 과정에 의해 조형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기를 거치는 동안 올바른 도덕적 직관 형성의 중요성과 교육에 있어 정서적 측면의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헤이트의 연구가 규명한 인간 도덕 기능의 특징들이 최근의 통합적 도덕 발달 이론에 있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덕 발달 이론에의 시사점 도출은 도덕 행동의 산출에 작용하는 요소들을 규명한 레스트(J. Rest)의 4구성 요소 모델(the Four Component Model), 도덕적 정체성을 매개로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위를 연결시키고자 한 블라지(A. Blasi)의 도덕적 정체성 이론(Moral Identity Theory)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1) 레스트의 4구성 요소 모델에의 시사점

레스트(J. Rest)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 발달은 단순하게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높다고 해서 도덕적 행동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감정 이입 또는 죄책감과 같은 도덕적 정서가 발달된다고 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나친 감정이입이나 과도한 죄책감은 비정상적 신경증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겉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 의한 행동이라면 그 개인이 도덕적인 사람인 것은 아니다(서미옥, 2005, p.160). 이에 레스트는 도덕적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 있어 요구되는 요소를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 도덕 판단(moral judgement),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 도덕적 품성 및 실행력(moral character)의 네 가지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도덕 발달을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주의할 점은 각각의 과정들은 이성과 정서의 상호작용을 구성요소로 하며, 각 과정들이 단선적인 연계적 관련성(linear sequence)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과정은 다른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각기 별개의 과정이다. 그렇기에 1과정에 이어 제2, 3, 4과정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각 구성 요소 간에는 복잡한 결합, 배합, 조화 작용이 이루어진다(배한동, 2000, p. 161).

제 1과정(Component 1)은 도덕적 행위에 앞서 도덕적 사태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이 가능하며, 그 행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예측되는지에 관심을 갖는 과정이다. 이는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이 함께 작용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도덕적 민감성이다. 이러한 도덕적 민감성은 공감, 감정이입, 죄책감, 수치심 등의 정서를 포괄한다. 제 2과정(Component 2)은 선택 가능한 도덕적 행위들 중에서 어떠한 행동이 가장 도덕적인지를 판단하는 이성적인 판단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도덕적 판단력이다. 제 3과정(Component 3)은 도덕적 의사 결정(moral decision making)과정으로서 개인이 행동으로 옮길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도덕적 동기화이다. 도덕적 동기화는 다른 모든 가치와 의도들 보다 도덕적 가치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 가치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4과정(Component 4)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도덕적 행동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으로서, 이 과정에서는 의지력, 인내, 자아 강도(ego-strength), 자아 통제(self-regulation)등의 도덕적 품성 및 실행력이 요구된다.

노영란(노영란, 2013)의 관점을 차용하면 도덕적 행위는 목적적 차원의 인지와 수단적 차원의 인지를 필요로 한다.¹²⁾ 목적적 차원은 행위의

여러 가지 목적 중 중 도덕적인 목적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되며, 수단적 차원은 여러 선택 가능한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접근-회피의 감정 반응에 의해 직관적인 판단이 도출된다는 헤이트의 관점을 차용하면 목적적 차원은 첫째, 상황에 대하여 접근-회피 반응 중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 여부와 둘째, 그 반응의 강한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정서 반응이 특정 심리 기체에 의해 도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그 정서 반응의 정도가 강할 때, 그 목적적 차원의 인지가 도덕적 행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떠한’ 감정적 반응이 나타나는가 여부는 레스트의 제 1과정 중 도덕적 민감성과 관련되며 반응의 ‘강한 정도’는 제 3과정의 도덕적 동기화와 관련된다.

수단적 차원은 레스트의 4구성요소 모델의 제 1과정에 있어 선택 가능한 행위를 모색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직관적 또는 추론적 형태의 인지와 관련된다.¹³⁾ 이 중 추론적 형태의 인지는 테틀록의 구분에 따르면 탐구적 추론에 해당한다. 여러 선택 가능한 행위 중 어떠한 것이 가장 도덕적인가를 판단하는 추론 형태인 제 2과정의 도덕적 판단은, 헤이트의 관점에 따르면 감정적 반응에 의해 선택된 즉, 목적적 인지에 의해 선택된 수단에 대한 합리화에 기여한다. 이는 테틀록의 구분에 따르면 확증적 추론에 해당한다.

레스트의 관점을 헤이트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제 4과정의 품성화 및 실행력은 상황에 대한 정서 반응에 따라 도덕적 동기화(접근 반응)가 이

12) 목적적 인지와 수단적 인지의 구분은 목적 추론과 수단 추론을 구분한 노영란의 관점(노영란, 2013)을 차용하였다.

13) 헤이트는 제 3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의 도덕적 판단을 다루고 있기에 도덕적 판단이 직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에 그의 연구에서 이러한 수단적 차원의 인지와 명확한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 즉, 헤이트가 사용하는 도덕적 판단이라는 용어는 개인의 행위 선택과는 관련성이 낮아 보인다. 그린과 나바에츠는 개인의 행위 선택 차원에 있어 도덕적 판단을 다루고 있기에 직관과 함께 추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에 수단적 차원의 인지와 관련하여서는 그들의 주장이 더 높은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루어지는 동시에, 제 1과정에서 모색한 수단들이 회피 반응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을 때 도덕적 행위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도덕적 행위에 대한 접근 반응의 존재를 전제로 회피 반응의 정서가 강한 경우에는 도덕적 품성화 및 실행력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헤이트의 관점을 차용하자면 개인의 행위는 접근-회피의 정서 반응에 의해 크게 영향 받으며 이성적 추론은 행위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에 대한 감정적 회피 반응이 강하게 발현될 경우 품성화 및 실행력은 도덕적 행위를 담보하지 못한다. 즉, 헤이트의 관점에서는 정서 반응에 의해 도덕적 동기화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도덕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레스트는 개인의 내부에 있어 도덕적 성향과 이기적 욕구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론 능력을 통해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욕구를 극복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헤이트의 관점을 차용하자면 강한 정서 반응에 상충하는 판단은 이중적 태도를 견지하게 할 뿐이기에, 단위 상황에 있어 도덕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덕적 성향이 강한 정서 반응이 발현되어야 한다. 즉, 도덕적 민감성에 의해 강한 정서 반응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정서반응이 동시에 강하게 도덕적 동기화를 일으킬 때 즉, 목적적 인지가 도덕적 방향으로 행위를 인도할 때 탐구적 인지과정 즉, 수단적 인지과정이 그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확증적 인지과정은 이를 합리화하는데 기여하며 품성화 및 실행력은 도덕적 정서 반응이 다른 정서 반응에 비하여 강하게 표출되지 않는 한 의미를 갖기 어렵다.

2) 블라지의 도덕적 정체성 이론에의 시사점

블라지는 “어떤 사람들은 도덕 판단이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러지 않는 것일까”, “같은 수준의 도덕 판단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판단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왜 그렇지 않은 것일까”와 같은 의문에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도덕 판단과 도덕적 행동을 이룰 수 있는 도덕 기능에 있어 자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도덕적 인지에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의 이행과 도덕 판단 및 행동의 일관성에 초점을 맞춘 자아 모델(the Self Model)을 제안하였다. 자아 모델의 기본 전제와 특징을 나타낸 7가지 명제는 <표-4>과 같다(이정렬, 2009, p. 43).

<표-4> 블라지의 자아 모델(Self Model)의 7가지 명제(이정렬, 2009, pp. 43-44)

블라지의 자아모델의 7가지 명제
명제1: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추론 구조에 따라서 규정되고 해석된 상황에 대한 반응이다.
명제2: 도덕적 행동은, 직접적으로는 도덕적 선택, 즉 도덕 판단의 내용에 의거하며, 도덕 추론의 구조 또는 범주는 어떤 특정한 행동과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명제3: 도덕적 행위로 이르기 전에 도덕 판단은, 책임감이라는 이차적 기준 또는 범주를 고려한 일련의 규칙을 통해 진행된다. 책임 판단의 기능은,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이 자신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여기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명제4: 책임판단에 도달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고 개인의 자아규정(self-definition)과 관련이 있다.
명제5: 책임판단에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은, 성격 구성의 핵심적인 경향 즉, 자아일치의 경향에 의거한다.
명제6: 도덕 판단과 도덕적 행동의 일치는, 만약 갈등을 일으키는 욕구의 방해를 다루는 전략이나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명제7: 책임판단과 일치하지 않은 행동은 죄책감을 유발한다. 죄책감은 자아 내에서의 불일치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다.

일곱 가지 명제는 자아 모델의 기본 전제와 특징을 통해, 도덕 판단에서 도덕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자아의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자아 모델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그 구성 요소로 한다. 이는 도덕 판단이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심리적 요소인 ‘도덕적 정체성’ 과 ‘도덕적 책임감’ 그리고 ‘자아일치’ 이다. 첫 번째 구성요소인 도덕적 정체성을 살펴보면, 도덕적 자아는 도덕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도덕적 가치를 정체성의 중심에 둔다. 도덕적 자아란 그의 정체성이 도덕적 범주를 준거로 구성되거나 도덕적 추론의 영향 하에서 구성되는 자아이다. 도덕적 자아는 존재의 핵심에 도덕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생활에서 많은 도덕적 고려를 한다. 그런데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에서 도덕적인 것이 자아의식의 핵심적 또는 본질적 특성이 되는 정도는 모두 같지 않으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이정렬, 2009, p. 45).

도덕적 정체성이란 블라지의 이론에서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구체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도덕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맥락화 된’ 도덕적 정체성이다. 블라지에 따르면 정체성 구성은 도덕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도덕 구조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구성되며, 사회적 현실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반영한다. 개인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역할 채택의 기회, 그리고 도덕적 문제를 통해 조직화된 도덕적 사고를 발달시키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이해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사회 관계와 사회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이해를 반영하며, 이러한 이해는 개인의 지식 발달과 풍부하고 복잡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변할 수 있다(이정렬, 2009, p. 102). 즉,

블라지에 따르면 도덕적 이해는 일반적인 도덕 원리를 다양한 인간관계와 상황에 주체적으로 적용하는 경험을 통해 성숙되고 구체화된다. 이러한 과정은 ‘맥락화 된’ 도덕적 정체성 형성의 핵심이다.

도덕 구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맥락화 된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은 ‘무엇이 도덕적인가’와 같은 수단 추론적 측면과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가’와 같은 목적 추론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도덕적 정체성에 있어 완전한 도덕적 통합이란 반복적인 추론과 반성을 통해 설정한 이상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나가는 것이다. ‘맥락화 된 도덕적 정체성’에 있어 목적 추론은 ‘도덕적’과 관련이 깊으며 수단 추론은 ‘맥락화 된’ 도덕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깊다.

만일 목적 추론적 측면이 도덕적으로 강하게 동기화 되었지만 반복적인 반성적 추론의 부족으로 인해 수단 추론적 측면이 허술하게 발달될 경우 이는 극단적으로 말루프(A. Maalouf)가 제시한 ‘살상하는 정체성 (identities that kill)’으로 발현될 수 있다. 그는 엘살바도르의 엘 모조테(El Mozote)라는 지방에서 일어난 대량학살을 예로 든다. 그 곳에서 군인들은 어린이와 여성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하였다. 이러한 대량학살에 대해 우리는 그 군인들이 도덕적 정체성이 결핍되어 있거나 적어도 도덕적 자아 개념보다 강한 다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군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도덕적 임무라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행동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이정렬, 2009, p. 152). 이러한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덕적 정체성에 있어 수단 추론적 측면이 보편타당한 원리에 입각하지 못할 경우 도덕적 정체성은 왜곡된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다.

만일 도덕적 정체성에 있어 수단 추론은 발달되었지만 목적추론이 발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기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수단추론은 행위의 내용이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에의 부합 여부’를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면 목적 추론은 도덕적인 행동을 실제로 ‘동기화’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목적 추론의 결과가 도덕적으로 강하게 동기화 되어있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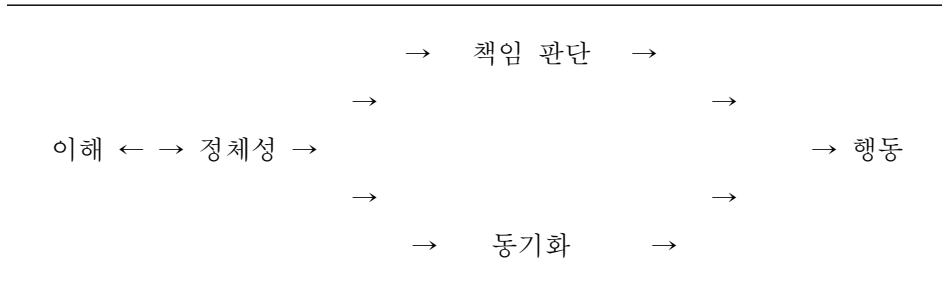
는다면 도덕적 정체성을 통해 도덕적 판단을 행동으로 동기화 하는 일은 어려워진다.

도덕적 정체성 모델의 두 번째 구성요소인 도덕적 책임감은 판단과 행동의 관계에서 중요한 측면으로, 도덕적 이해가 개인의 책임판단으로 전환됨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덕적 책임감은 도덕성이 자아정체성 또는 자아감에 통합된 결과로 나타난다. 책임 판단의 기준들은 개인의 자아규정(self definition)과 관련이 있다. 도덕적 책임감에 의해 도덕 판단은, 도덕적 행동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개인에게 도덕적으로 평가되고 또 엄격하게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행동’ 즉, 책임판단으로 전환된다. 즉,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옳은’ 또는 ‘도덕적인’ 방법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이정렬, 2009, p. 45).

세 번째 구성요소인 자아일치(self consistency)는, 자신의 자아의식과 일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본질적인 인간의 경향성을 의미한다. 자신의 도덕적 이상과 일치된 행동을 하려는 자아일치의 심리적 요구는 도덕적 정체성으로부터 나온다. 자신의 자아를 이해하고 정의하는데 있어서 선함, 정의로움, 공평함 같은 도덕적 범주가 중심이 될 때,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아일치의 요구는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 시키는데 핵심 원동력으로 작용한다(이정렬, 2009, p. 46).

블라지의 이론을 종합하면 도덕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덕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도덕 판단을 실천하려는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실제적 자아(real self)와 이상적 자아(ideal self)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자아일치의 요구로 인해 도덕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행동의 동기화에 대한 블라지 이론은 아래 <그림-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6> 도덕적 정체성과 동기화에 대한 블라지의 이론(정창우, 2003, p. 198)



콜버그의 입장에서 도덕적 행동을 위한 도덕적 동기화는 도덕적 원리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충실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원리를 배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블라지는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한 도덕적 동기화를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이 나타난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자아를 배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블라지에 있어 도덕적 원리에 대한 이해는 동기화의 힘을 제공하며 자아의 구조 속으로 통합된다. 즉,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블라지의 이론은 도덕적 이해를 중심으로 한 도덕적 자아의 구성과 그 기능에 대한 강조로 이해할 수 있다(이정렬, 2009, p. 48).

블라지가 이성적 차원인 도덕적 정체성이 자아일치감이라는 정서적 반응을 거쳐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낸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헤이트의 관점을 차용하자면 도덕적 정체성은 이성적 측면인 도덕적 정체성과 정서적 측면인 정체감을 동시에 그 구성요소로 하며 그 자체로 도덕적 행위를 도출한다. 즉, 맥락화 된 도덕적 정체성이란 문화 또는 하위문화 속에서 조형화된 인지로서 정서적 측면과 이성적 측면이 동시에 작용한다. 사회적 조형화를 통해 형성된 인지가 상황에 대한 강한 도덕적 정서 반응을 유발하고 이러한 반응이 여타 정서 반응보다 우선적인 감정 반응으로 도출되고(목적적 인지), 이러한 감정 반응이 적절한 수단을 모색하는데 성공할 때(수단적 인지) 도덕적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 목적적 인지는

도덕적 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책임감을 포괄하며 자아일치감 등의 감정 반응과 구분되기 어렵다. 수단적 인지는 감정적 반응과 상호작용하며 적절한 수단을 모색하는 이성적 작용이다. 목적적 인지 차원에서의 도덕적 정체성이란 누적 경험들을 통해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방향으로 정서 반응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책임감은 도덕적 정체성의 구성 요소로서 도덕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정서 반응과 같은 인지 측면이 다른 측면의 반응보다 강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일치감도 이러한 정서 반응 즉, 도덕적 정체감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수단적 인지 차원에서의 도덕적 정체성이란 문화적 조형화에 의한 구체적인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헤이트에 따르면 개인은 접근-회피 반응에 의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도덕적 정체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정서 반응이 이기적 정서반응에 우위를 갖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즉, 블라지가 도덕에 대한 이성적인 이해와 관심이 정체성의 핵심에 놓이는 것을 도덕적 정체성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헤이트에 따르면 도덕적 정체성이란 문화적으로 조형화된(수단적 인지 차원) 도덕적인 방향(목적적 인지 차원)으로의 인지(정서, 이성의 복합적 작용)로 볼 수 있다.

블라지의 도덕적 정체성 이론을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경우, 자아일치감이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가 가능한 정도의 범주까지를 포괄하기에 오히려 비도덕적 행위를 합리화하고 자기기만으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에 <표-3>을 통해 지적하였듯 아동기에 직관적이고 반사적인 도덕적 정서 반응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기에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가’와 같은 목적 추론적 측면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목적적 인지 차원에서 도덕적 정체성을 학생들에게 내재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우 아동기의 비도덕적 정서를 상쇄할만한 정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추론을 강조하는 청소년기의 도덕 교육은, 표면적으로 도덕적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표면 아래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중적 태도에 기여하게 된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우리의 도덕 판단이 정서적 모듈의 문화적 조형화를 통해 무비판적으로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도덕 교육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반복적인 반성을 통해’ 도덕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목적적 인지와 수단적 인지 측면을 모두 발달 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인간은 직관적으로 도출된 판단을 추론을 통해 합리화 하는 확증 편향이 있기에 그에 대한 반성적 숙고는 교육을 통해 유도되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판단과 행위 변화 및 타인에 의한 설득은 정서적 영향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반성적 추론을 유발시키기 위한 도덕 교육은 ‘정서적 영향을 수반하는’ 반성적인 숙고를 필수요소로 해야 한다.

3. 도덕 교육에의 시사점

헤이트는 합리주의 접근이 인간의 도덕 기능을 설명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도덕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실패하였다고 비판하며,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통해 인간 도덕 기능의 기제를 사실적 차원에서 규명하였다. 헤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적 판단은 많은 경우 접근-회피 반응의 정서에 크게 영향 받는 직관적인 형태로 도출된다.¹⁴⁾ 또한 그러한 접근-회피의 정서적 반응에 의거한 판단은 도덕의 언어를 통해 표현되고 추론을 통해 합리화 된다.

인간의 도덕 기능이 갖는 이러한 사실적 특징들은 도덕 교육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첫째, 도덕교육은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직관의 발달에 기여하여야 한다. 도덕적 민감성과 탐구적 인지 및 도덕적 동기화가 정서반응에 크게 의존적이며 많은 경우 직관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적 정체성 형성과 자아일치감을 통해 동기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은 자기기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직관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에 추론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어렵다. 둘째, 도덕 교육은 개인의 도덕 기능이 상당부분 직관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많은 경우 추론이 합리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직관적 판단이 갖는 위험성을 경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인간의 인지가 확증편향 특성을 갖는다는 점은 개인이 외부의 도움 또는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노력 없이 반성적 추론을 하는 것이 어려우며, 교육은 개인을 반성적 추론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관적 판단 기체에 내재된 위험성을 경계하고 합리주의 접근 교육이

14)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덕적 판단은 제 3자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는 차원의 도덕적 판단은 그린과 나바에츠의 지적처럼 직관적인 형태와 추론적인 형태 모두를 통해 이루어진다.

갖는 실효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바에츠는 통합적 윤리교육 모델(Integrative Ethical Education)을 제시한다. 그녀는 심사숙고하는 마음과 직관적인 마음 두 가지의 협력을 통한 총체적인 훈련 접근법을 체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덕적 전문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도덕적 전문성의 형성을 위해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도덕적 행동의 과정과 기술을 가르쳐야 하며 학생들의 도덕적 직관을 길러주기 위한 도덕적으로 잘 구조화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정창우, 2011, p. 121). 본 절에서는 나바에츠의 통합적 윤리교육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헤이트의 이론이 도덕 교육의 실제에 있어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나바에츠의 통합적 윤리 교육 이론에의 시사점

나바에츠(D. Narvaez)는 인간의 도덕 기능에 있어 나타나는 인지의 형태로서 직관과 추론 모두를 인정하며 이 둘을 모두 도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녀의 이론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상황에 대한 반응별로 즉, 인지하는 대상의 범주와 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나타나는 도덕적 정향을 분류해 놓은 삼층 윤리 이론(Triune Ethics Theory)이 있다. 둘째는 학생들의 도덕적 정향을 더 넓은 범주로 확장시키고, 이성과 정서가 조화로운 작용을 하며 긍정적인 도덕적 정향으로 발현되는 것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으로써 통합적 윤리교육(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모델 즉, 도덕적 전문성 모델이 있다.

우선 삼층 윤리 이론을 살펴보자면, 삼층 윤리 이론(Triune Ethics Theory)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바에츠는 맥린(P. MacLean)의 삼층 두뇌 이론(Triune Brain Theory)에서 영감을 받아 개인이 도덕적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도덕적 정향을 분류하였다. 삼층 윤리 이론은 인간의 두뇌로부터 형성되는 정서적 인지가 어떠한 방식

으로 도덕을 인지하고 도덕적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준다. 헤이트가 개인이 당면한 상황에서 도덕적 판단의 기반이 되는 정서적 모듈을 제시한 것처럼, 나바에츠는 개인이 당면한 상황에서의 정서적 반응을 도덕적 정향들에 기인시킨다. 나바에츠의 삼층 윤리이론은 <표-5>와 같다.

<표-5> 삼층 윤리의 도덕적 정향(정창우, 2012, p. 12)

삼층 윤리 - 주요 유형 및 하위 유형
<p>관여 평온과 공동체적 상상 마음챙김 도덕(도덕지대)</p>
<p>상상 유리된 상상 (지성적 도덕) 악덕한 상상 (독선적 도덕) 공동체적 상상 (아가페 도덕)</p>
<p>관여 관여 불안(상호 의존적 도덕) 관여 평온(조화의 도덕)</p>
<p>안전 윌플라워 안전(수동적 도덕) 벙커 안전(도전적 도덕)</p>

삼층 윤리 이론은 개인에게서 특정한 도덕적 정향이 목격되는 현상이 근본적으로 상황 요소에 기인한다고 본다. 삼층 윤리 이론에서 사용되는 정향 개념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인지되는 관심의 대상 범주와 상황에

서 우선시 되는 정서적 반응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나바에츠가 보았을 때 도덕적 행동은 이러한 정의적 기반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도덕적 정향이란 정서적 경향에 의해 동기화된 인지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정서적 정향은 도덕적 정향으로 드러나고 이는 행동 경향으로 연결된다.

관심 대상의 범주를 기준으로 도덕적 정향을 구분하면 안전의 윤리(The Ethics of Security), 관여(참여)의 윤리(The Ethics of Engagement), 상상의 윤리(The Ethics of Imagination)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도덕적 정향의 범주를 구분하는 기준은 개인이 판단 및 행위에 있어 어떠한 대상의 범주에 대한 가치를 다른 대상 범주에 대한 가치 보다 중요하게 '인지' 하는가 이다. 각 대상 범주의 하위 구성요소인 세부 정향들은 중요하게 인지된 대상 범주에 대하여 어떠한 감정적, 이성적 반응이 우선적으로 도출되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병커 안전, 윌플라워 안전, 관여 평온, 관여 불안, 유리된 상상, 악덕한 상상, 공동체적 상상으로 구분된다. 특정 정향이 다른 정향들보다 우선성을 갖는 것으로 인지되고, 그에 기반한 행위가 가장 규범적으로 옳다고 판단되어 현저한 행동 경향성으로 이어질 때, 이 정향은 개인에 의해 도덕적 가치를 부여받게 되며 개인에게 있어 윤리로 인식된다. 각 윤리는 특수한 상황맥락과 개인 인성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세 범주의 윤리적 정향이 갖는 대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의 윤리 정향은 모든 동물들에 내재한 본능들에 기인하며 개인적 안전 또는 내집단 지배를 통한 자기보존을 우선시 한다. 두려움 및 분노와 관련된 안전윤리는 다른 두 윤리와 달리 뇌에 모듈화 되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수정되거나 손상되지 않는다. 안전의 윤리 정향은 신체적 '생존' 및 '번영'에 초점을 둔다. 모든 유기체는 자기보호를 통해 생존을 도모하려하기에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자동적으로 탐색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보호를 위해 분노하며, 무엇이 자신에게 안전하지 않은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

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학습한다. 안전의 윤리 정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 개인은 자신과 내집단의 안전을 타인과 외집단의 안전보다 우선시 하며 이에 기반 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박장호, 2012b, p. 9).

이러한 안전의 윤리 정향은 병커안전(Bunker Security)과 월플라워 안전(Wallflower Security)으로 대표된다. 첫째, 병커안전은 물리적 자아 혹은 심리적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태세로 외부의 위협에 대하여 공격적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의미하는 안전 윤리 정향의 ‘외향적 형태’이다. 둘째, 월플라워 안전은 병커안전과는 반대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권위에 대해 수동적이며 위축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의미하는 안전 윤리 정향의 ‘내향적 형태’이다.

둘째, 관여의 윤리 정향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면대면 관계의 타인과 상호 배려하는 우호적인 유대를 지향한다. 관여의 윤리는 관여평온(engagement calm)과 관여불안(engagement distress)으로 구분된다. 관여 평온은 안전의 윤리에서 드러나는 자기중심성을 억제하며 타인에 대한 동정, 사랑, 배려와 같은 우호적 감정을 가지고 자기희생의 덕을 발휘는 것이다. 관여 평온의 자아는 배려와 신뢰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타인들과 더불어 매 순간을 사는 존재(being-in-the-moment)가 되고, 이러한 관여평온의 상태는 화합도덕성(harmony morality)을 형성한다(박장호, 2012b, p. 10). 반면 관여불안은 타인에 대한 공감 및 연대감은 강하지만, 높은 애착과 배려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여불안은 자기규제의 메커니즘이 약할 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불신, 갈망, 수치심과 같은 감정으로 표출된다. 접근-회피 정서반응에 따른 도덕 판단을 강조하는 헤이트의 관점을 차용하자면, 이는 ‘개인이 인식하는 내집단 또는 우호적 외집단의 범주 확장’으로도 볼 수 있으며, 안전 윤리 정향의 신체적·심리적 자아 범주가 사회적 범주로 확장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범주의 확장은 인지 발달과 같이 대상 범주의 일괄적인 확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대상 및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상상의 윤리 정향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즉, 면대면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지향한다. 나바에츠에 따르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면대면 관계를 벗어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상상의 윤리 정향은 추론 및 숙고를 통한 ‘나와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관계에 대한 상상’을 필요로 한다. 즉, 개인의 정서적 능력과 함께 이성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현재의 사회적 관계들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요구를 넘어 더 넓은 범위의 요구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나바에츠는 이것을 ‘도덕적 상상력’이라 칭하는데, 이는 나딩스(Noddings, N)가 제시하는 배려의 동심원 구조와 유사하다. 나딩스는 배려의 범위를 동심원에 비유하여, 동심원의 중심에 가까이 있는 자신과 친밀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접 만나보지 못한 모르는 타인에게까지 배려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생면부지의 타인에게까지 배려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동력은 ‘공감적 동정심’ 및 ‘배려에 대한 열정’이며, 이 두 요소는 개인이 타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모습을 ‘윤리적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도록 이끈다. 상상의 윤리는 콜버그의 인지발달론 관점에서 명시적 지식과 관련한 ‘숙고적 추론’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인간의 의사결정 및 행위는 자동적이고 암묵적이라는 인지과학의 연구결과에 따라 숙고적(추론적) 정신(deliberative mind)과 구분되는 직관적 정신(intuitive mind)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에 입각하여 삼층 윤리 이론은 숙고적 정신과 직관적 정신의 통합적 발달을 지향한다. 나바에츠에 따르면 숙고와 직관을 통합하는 작업은 상상 윤리가 수행하는데, 이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능력을 갖는 상상윤리가 본능적 반응인 안전 윤리와 관여 윤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상 윤리 정향은 유리된 상상(detached imagination), 악덕한 상상(vicious imagination), 공동체적 상상(communal imagination)으로 구분된다. 첫째, 유리된 상상은 ‘지금 여기’의 존재가 아닌 대상과 정서적으로 분리됨으로써 발생한다. 개인은 친사회적 감정과 분리됨으로써, 원리나 규칙에만 의거하여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되며 이는 철저히 지적으로 편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이러한 경우 도덕적 문제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결여되어 원리와 규칙, 단편적 지식들로 추상화된 판단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악덕한 상상은 유리된 상상과 같이 좌뇌가 지배적으로 활성화되지만 분노 혹은 공격성과 같은 감정이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정향이다. 이는 권력추구, 타인에 대한 지배, 우월감과 같은 자아의 욕구가 발현된 것이다. 셋째, 공동체적 상상은 면대면의 관계가 아닌 타인들에게 연대감을 갖는 정향이다. 공동체적 상상은 자신의 친사회적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예측 능력과 풍부한 사회적 경험에 기반한다.

헤이트의 관점을 차용하자면 단위 상황에 있어 면대면의 관계를 벗어난 타인에 대한 배려 또한 접근-회피 반응에 의하며, 도덕적인 방향으로의 감정 반응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이러한 감정 반응이 없다면 배려 대신 무관심 또는 면대면의 관계에 대한 우선시가 도출될 확률이 높다. 마주하게 된 단위 상황에 있어 이러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누적 상황을 통해 이들에 대한 도덕적 정서가 형성되어야 한다. 단위 상황에서의 숙고는 수단적 인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쉬우며 감정 반응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다.

<표-6> 삼층 윤리의 대표적 특징 (박장호, 2012b, p. 216)

	안전의 윤리(본능)	연관의 윤리(직관)	상상의 윤리 (속고와 서사)
특징	일상과 전통, 세력권, 전례답습, 지배와 지위를 위한 분투에 초점	정서의 자리, 행 경험에 대한 기억, 현실 감/진리, 현재의 정서적 자아, 우뇌성	지역적 및 상상적 문제 해결, 선견, 계획, 학습, 과거의 자아, 미래의 자아, 좌뇌성
가소성	폐쇄체계 : 조건화에 중속 : 모방	최초 두뇌 배선, 형성가능한 직관	학습된, 구성된 이해: 다른 윤리들에 의해 제한 가능
기본 정서	공포, 분노, 추구, 슬픔/패닉, (지배)	배려, 갈망, 놀이, 경외	피질하영역 정서 부위들의 조정자
학습	유연성 부재	유연성 다소	유연성 최대
스트레스 반응	싸움이나 도망	돌봄과 사قم	분리(정서와 기억 단절)
기본 인간욕구	개인적 자율(유도된 목표), 도구적 효능성	사람들 신뢰, 소속감, 사회적 효능성	이해, 목적 자기고양
도덕적 경향성	내집단 충성, 위계, 순수성, 구체적 상호성, 전통, 규칙, 의례, 상징	사랑과 동료의식, 정의, 상호성, 수치, 반응성	인지적 감정이입, 추상적 상호성, 추론, 창의적 반응
도덕성	자기보호적(구심점) 자기주장적(원심성) 자기관심의 대인관계	주변 타자 포괄적, 정서적 의미에 묶인 내 집단 구성원 의식	비주변 타자포괄적, 연관윤리와 연계될 때 인간적 심성
자아/타자 유해 경향성	기만, 타자통제	중독적 의존	반두라의 격리(연결없음), 기만(무논리적 상상), 초합리성(논리와 비상상)
권력	다른 두뇌영역을 폐쇄시킬 수 있음, 전례답습	동정, 감정이입	본능 전복, 빈약한 직관 극복, 인지적 프래밍으로 감정 변화시킴, 자유의사에 따른 "거부"

나바에츠는 안전윤리, 관여윤리, 상상윤리의 대표적 특징을 <표-6>과 같이 제시한다. 나바에츠는 학생들의 도덕적 정향을 더 넓은 범주로 확장시키고, 이성과 정서가 조화로운 작용을 하며 긍정적인 도덕적 정향으로 발현되는 것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으로써 통합적 윤리교육(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모델 즉, 도덕적 전문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나바에츠는 도덕적 기능이 직관적이고 암묵적인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직관적이고 암묵적인 과정은 전문가의 과정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초보자가 숙고를 통해 느리게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에 비해 전문가는 빠르고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전문가는 의미 있는 정보를 인식하면서 자동적이고 의도적이며 목표의존적인 처리 과정을 사용한다.¹⁵⁾ 자신의 영역에서 문제에 부딪힌 전문가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지식에 접근하고 알맞은 시점에 적절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빨리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반면 같은 문제에 부딪힌 초보자는 문제에 대해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 적용된 절차에 근거하여 피상적이고 비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다.(정창우, 2012, p. 345)

나바에츠에 따르면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첫째, 전문가는 전문가들로부터 멘토링을 제공받는 상호작용 상황과 잘 구조화된 환경에서 기술을 배운다. 둘째, 전문가들은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 개발된 명시적 이론(explicit theory)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메타인지적 코칭(metacognitive coaching)과 문제 해결 전략(strategy)을 위한 가르침을 받는다. 셋째, 전문가들은 자신의 영역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며 집중적으로 연습한다(정창우, 2012, p. 345).

나바에츠는 이러한 전문성 논의에 기초하여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 즉, 도덕적 전문성 모형을 제시한다. 나바에츠가 말하는 전문성이란 실천과

15) 자동성과 의도성이 공존 가능한 개념인가에 대하여 노영란(노영란, 2012:310-319)은 의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반사적이고 자동적으로 판단과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러한 것이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행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정련되고(refined) 깊은(deep) 이해를 의미한다. 즉, 전문성은 단순히 기술적 역량이나 지적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덕을 행위로 표출시키기 위한 목표 지향적 방식으로 모든 시스템이 함께 작용할 수 있도록 일체의 능력을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정창우, 2012, p. 346). 나바에츠에 따르면 도덕적 인격의 발달이란 관여와 공동체적 상상 윤리의 통합의 최고 단계인 마음 챙김 도덕의 인격 형성을 의미하며, 마음 챙김 도덕의 인격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전문성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기술을 포함하는 도덕적 노하우를 체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하연, 2013, p. 80).

나바에츠는 레스트(Rest, 1983)의 4구성요소 모형에 근거하여 도덕성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들(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화 혹은 초점, 도덕적 행동)을 제시한 후 각 요소별로 도덕적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일련의 기술들(skills)을 제시한다(정창우, 2012, p. 346). 덧붙여 나바에츠는 도덕적 인간이란 예리한 자각과 관점 채택, 숙련된 추론, 도덕적 동기화 성향 그리고 도덕적 행동을 이행하는 기술들을 가진 사람(정창우, 2012, p. 347)이라 정의한다. 나바에츠가 제시한 도덕성의 네 가지 요소와 각 요소를 구성하는 일곱 가지 윤리적 기술 및 각 기술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 기술들은 <표-7>과 같다.

<표7> 도덕적 행동의 네 가지 요소와 기술 및 각각의 하위기술 (정창우, 2008, p. 277)

감수성 sensitivity	판단 judgment	중점 focus	행동 action
ES-1 : 감정표현의 이해 감정의 확인과 표현 자신의 감정 조정하기 노여움과 공격성 다스리기	EJ-1 : 윤리적 문제의 이해 정보 수집하기 문제 분류하기 윤리적 문제 분석하기	EF-1 : 타인 존중하기 공손하고 예의 갖추기 공격적이지 않기 존경 나타내기	EA-1 : 갈등과 문제 해결 상호 관계의 문제 해결하기 협상하기 개선하기

<p>ES-2 : 다른 사람의 관점 채택 대안적 관점 채택하기 문화적 관점 채택하기 정의(justice) 관점 채택하기</p>	<p>EJ-2 : 준칙(codes)의 사용과 도덕적 기준 확인 준칙 특징화하기 준칙을 분별하여 적용하기 준칙의 다양성 판단하기</p>	<p>EF-2 : 양심의 함양 자제(극기)하기 영향력 관리하기 명예롭게 되기</p>	<p>EA-2 : 공손하게 주장하기 인간의 욕구에 주목하기 주장기술 형성하기 공손한 수사법 사용하기</p>
<p>ES-3 : 다른 사람과 관계 형성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배려 나타내기 친구 되기</p>	<p>EJ-3 : 일반적으로 추론하기 객관적으로 추론하기 건전한 추론 사용하기 추론의 함정 피하기</p>	<p>EF-3 :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의무 이행하기 훌륭한 담당자 되기 훌륭한 세계시민 되기</p>	<p>EA-3 : 지도자로서 술선수범하기 리더 되기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술선수범하기 다른 사람의 조언자 되기</p>
<p>ES-4 : 다양성에 반응하기 그룹과 개인차 속에서 일하기 다양성 인식하기 다문화적으로 되기</p>	<p>EJ-4 : 윤리적으로 추론하기 관점들 판단하기 표준과 이상에 대해 추론하기 행동과 결과에 대해 추론하기</p>	<p>EF-4 : 공동체의 일원되기 협동하기 자원 공유하기 지혜 함양하기</p>	<p>EA-4 : 결정의 실행 계획하기 전략적으로 사고하기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자원의 사용 결정하기</p>
<p>ES-5 : 사회적 편견 통제하기 편견 진단하기 편견 극복하기 관용 가르치기</p>	<p>EJ-5 : 결과 이해하기 자신의 환경 선택하기 결과 예측하기 결과에 대응하기</p>	<p>EF-5 : 삶의 의미 찾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현신적 태도 기르기 경이로움 함양하기</p>	<p>EA-5 : 용기 함양하기 두려움 다스리기 압력 견디내기 변화와 불확실성 다스리기</p>
<p>ES-6 : 상황을 해석하기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규정하기 도덕적으로 인식하기 창의적으로 대응하기</p>	<p>EJ-6 : 과정과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 목표와 수단에 대해 추론하기 올바르게 선택하기 과정을 재구성하기</p>	<p>EF-6 : 전통과 제도에 가치 부여하기 전통을 명확히 알고 가치 있게 여기기 사회구조를 이해하기 민주주의를 실천하기</p>	<p>EA-6 : 참을성 기르기 확고부동 장애를 극복하기 능력을 형성하기</p>

ES-7 : 의사소통 잘하기 말하고 듣기 말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하기 의사소통을 모니터하기	EJ-7 : 맞서서 극복하기 긍정적인 추론을 적용하기 실망과 실패를 다루기 회복방법을 개발하기	EF-7 : 윤리적 정체성과 자기 통합성 개발하기 좋은 가치를 선택하기 자신의 정체성 형성하기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EA-7 : 열심히 일하기 달성가능한 목표를 세우기 시간을 관리하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	--	--	---

나바에츠는 이러한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안내가 불필요할 때까지 전문가로부터의 도제식 교육을 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도제식 교육의 방법으로, 역할모델을 모방하고 전문가로부터의 시기적절한 피드백을 제공받으며 오랜 기간 동안 멘토의 안내에 따른 집중적인 연습을 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기술과 절차를 실행함으로써 직관을 발달시키는 '초보자에서 전문가로(novice to expert)' 교수법을 제시한다(김하연, 2013, p. 88).

앞서 구분한 목적적 인지와 수단적 인지로 개인의 인지를 구분할 때, 목적적 인지는 직관적 형태로 도출되기 쉽지만 수단적 인지는 단순한 상황이 아닌 이상 직관적 형태로 도출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견 이는 전문성의 발현이 목적적 인지에서만 발현되기 쉽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추론과 숙고 또한 감정 반응의 영향 안에서 도출된 직관들을 기반으로 하기에 도덕적 전문가는 추론 및 숙고를 거칠 때도 신속하게 도덕적 행위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초보자에서 전문가로의 과정은 첫째, 메타 인지를 강조하는 교육과 둘째, 도덕성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필요로 한다. 먼저 메타 인지를 강조하는 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헤이트를 받아들여 나바에츠는 인간 도덕 기능의 상당 부분이 직관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직관의 위험성을 경계하기 위하여 도덕과 교육이 추론을 강조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

여준다. 인간의 도덕 기능에 대한 헤이트의 분석을 전제할 때, 이러한 추론은 ‘추론 능력 그 자체’가 아닌 직관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로서의 추론’에 대한 강조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상기하였듯 헤이트에 따르면 개인은 정서 반응에 의해 도출된 직관을 통해 판단하고 행동하며 추론은 이를 합리화하고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보편타당한 원리에 기반한 추론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류로 가득한 판단이라 하더라도 정서적 영향만 미치면 개인의 직관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비도덕적 욕구에 흔들리거나 자기기만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도덕적인 방향으로 인격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덕 교육이 학생들의 반성적인 성찰을 이끌어 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반성적인 성찰은 도덕적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바에즈의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바에즈에 따르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는 능력인 메타인지 발달을 포함하여야 한다(김하연, 2013, p. 93). 헤이트가 규명한 인간의 도덕 기능에 관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이러한 능력은 특히 더 강조되어야 한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반사적인 접근-회피 기제에 기반한 정서 반응에 의해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도덕의 언어로 합리화 한다. 추론이 반성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직관적 판단과 행위는 언제나 오판과 왜곡의 위험성을 갖기에(Narvaez, 2010b, p. 182) 이러한 메타인지의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메타인지는 전문 영역에서의 기술적 노하우 외에 자기규제 능력으로 발현된다. 자기규제능력이 부족할 경우 순간적인 충동적 감정 혹은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기 쉽다.

나바에즈에 따르면 메타인지는 자기규제 기술(self-regulation skills)을 배우고 적응하는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짐머만(Zimmerman, B. J.)에 따르면 이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자기규제 기술은 자

기 점검(self-monitoring)이다. 이는 학생 스스로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주의를 유혹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둘째, 자기옹호(self-cheerleading)이다. 이는 목표를 위한 자신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 스스로를 독려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셋째, 목표달성에 효과적인 환경을 선택하고 조성하는 것이다(Narvaez, Lapsley, 2008, p. 6). 이는 도덕적 직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규제 기술은 직관과 추론이 동시에 작동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하연, 2013, p. 95). 도덕과 교육에 있어 ‘자신의 직관적 판단 및 충동적 감정들에 대해 반성적으로 숙고함으로써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주의할 것은, 헤이트에 따르면 이성적 추론을 통해 감정 반응에 기인한 직관을 변경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것이다. 개인이 의도적인 메타인지를 통해 스스로의 행위 선택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반성적 차원의 메타인지가 ‘정서적 영향을 주는 외부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자기 점검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정서적 직관이 존재할 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기 옹호는 강한 도덕적 정서가 내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이 추론을 통해 직관적 판단을 수정하는 일이 드문 일이라면, 학교 교육은 이러한 반성적 추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초보자에서 전문가로의 과정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인 ‘도덕성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을 도덕적 전문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환경적 요소는 첫째, 교사와 학생 간의 배려관계 형성 둘째, 지지적인 교실 풍토 조성이다. 먼저 나바에츠는 도덕적 인격교육을 위하여 성인과 학생의 배려관계를 강조한다. 그녀는 아동이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가정안에서의 배려하는 관계를 강조한다. 반응적 육아에서 시작하여 열린 의사소통으로 나아가는 긍정적 상호작용의 과정은 아이로 하여금 정서적 안락함을 느끼게 하며 아이의 존재인식 및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의 뇌는 감정적 신호와 동기로 장착되어있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가 갖는 관계의 특성은 아이의 인식과 행동, 즉 인지적 경향성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Narvaez, 2007, p. 136). 나바에츠는 버코위츠(M. Berckowitz)를 인용하며 훌륭한 도덕교사는 좋은 부모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버코위츠에 따르면 교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교사는 학생들 하나하나와 전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학생들과 건강한 감정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학생들의 감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배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교사는 학생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김하연, 2013, pp. 82-83).

둘째, 교실의 지지적인 풍토(supportive climate)는 학생들이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고 도덕적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잘 구조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지적인 풍토의 조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이 암묵적 지식 즉, 직관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관은 언어적 설명과 같은 명시적인 과정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형성 또는 조율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김하연, 2013, p. 84). 폴라니(M. Polanyi)에 따르면 인간의 삶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밝힐 수 없는 암묵적 차원(tacit dimension)이 있다. 폴라니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다'(이정렬, 2013, p. 2). 암묵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이정렬, 2013, p. 4), 이러한 암묵적 지식의 특징이 비의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노영란, 2013, p. 316). 즉, 암묵적 지식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의도를 형성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도덕적 직관 형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나바에츠는 솔로몬(Solomon. D)을 인용하며 인격을 가르치기 위해 잘 구조화된 환경으로서 배려하는 학교와 교실 공동체의 특징을 제시한다.

이는 첫째, 교사가 존경스러운 행위 모델이 되며, 학생들에게 지지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은 교실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가지며,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며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열린 논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진다. 넷째, 학생들은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갖는다. 나바에츠는 이러한 지지적인 풍토로 상호 존중하는 배려적인 교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김하연, 2013, pp. 84-85).

학생들이 느끼는 집단에의 소속감 및 구성원들과의 연대감은, 안전운리의 수동성을 극복하고 관여운리를 자극하며, 상상운리를 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지적인 풍토 속에서 학생들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고 타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될 확률이 높다. 배려하는 교실 풍토는 학생들의 감정이입 능력을 비롯한 친사회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덕적 정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하연, 2013, pp. 85-86).

교사와 학생 간의 배려관계 및 지지적인 학교와 교실의 풍토 조성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가 직관의 형성과 반성적 사고를 통한 수정 등을 현실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사회화를 거치며,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문화적 학습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이는 강조되어야 한다. 해리스의 연구(Harris, 1995)와 미노라의 연구(Minoura, 1992)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경험들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해리스에 따르면 아동기 후반과 청소년기의 아동들은 결속을 형성하고 신망을 축적하는 또래집단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부모처럼 되기보다는 또래집단에 적응하려 한다. 해리스는 아동이 또래들로부터 도덕적 가치를 포함한 문화를 습득한다고 보며 이를 하나의 집단 사회화로 본다. 미노라는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세에서 15세 사이가 문화적 학습에 가장 민감한 시기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미노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아동들은 친구들과 교류하며 미국식

정서가 발달되었으나 9세 이전에 미국에서 수년을 보낸 아동들의 경우 미국식 규준에 대한 심도있는 정서적인 학습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15세 이후에 미국에서 수년을 보낸 학생들은 문화에 대한 충격을 받지만 자신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Haidt, 2001, p. 828). 버코위츠(M. Berkowitz)와 데이먼(W. Damon) 그리고 블라지(A. Blasi)도 도덕적 정체성 형성은 아동후기에서 청소년기에 본격화 된다고 지적한바 있다(정창우, 2004, p. 124).

헤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문화적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문화적으로 공유되는 가치 등은 개인의 직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공유되는 문화는 내용 측면 및 대상에 대한 정서적 확장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학교 차원의 인성교육이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문화의 형성과 도덕적 귀감’ 및 ‘상호 배려적인 문화의 형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으로 귀결된다. 교사가 학생들과의 배려적인 관계를 통해 학생 집단에서 중요하고 친밀한 존재로 인지된다면 교사는 스스로의 모범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교는 자신의 직관을 형성하고 실험하며 수정하는 장소이기에 학교에서의 지지적인 풍토를 통해 도덕적 직관이 형성되고 강하게 동기화 된 경우, 이는 학교 밖의 사회에서의 도덕적 직관과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2) 도덕 교육의 실제에의 시사점

헤이트의 연구가 도덕 교육의 실제에 갖는 첫 번째 시사점은 교육의 목표 설정에 관한 것이다. 헤이트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과 행위는 접근-회피의 정서 반응에 의해 이끌어지며 동기화 된다. 도덕적 행위 선택이 개인의 행복 즉, 정서적인 접근 반응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는 동기화되기 어렵다. 또한 도덕적 행위 선택이 개인의 행복 즉, 정서적인 접근 반응에 부합한다면 도덕적 행위를 방해하는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동기화가 이루어진다. 즉 도덕 교육은 ‘도덕적인 삶이 행복한 삶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할 필요성이 있다.

도덕적인 삶과 행복한 삶을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비도덕적 욕구 충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행복 지향적 삶’ 보다는 ‘도덕 지향적 삶’이 교육적으로 더 요청되게 된다. 이는 도덕 교육에 있어 도덕적 추론 능력의 신장이라는 목표로 이어지게 되며 학생들의 도덕성과 괴리되어 존재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 도덕적인 삶은 행복한 삶의 여러 선택적 요소들 중 하나이며, 개인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에, 도덕 교육은 학생들의 내면에 있어 도덕적인 삶과 행복한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헤이트의 연구가 도덕 교육의 실제에 갖는 두 번째 시사점은 학생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감정적 접근 반응(도덕적 민감성)을 일으키고 이러한 감정 반응을 강하게(도덕적 동기화) 일으키는 것이 도덕 지향적인 경향성(도덕적 방향의 목적적 인지)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살펴 보았듯 도덕적 방향으로의 목적적 인지가 발현되지 않는다면 도덕적인 방향으로의 수단적 인지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행위와 괴리된’ 또는 ‘합리화에 기여하는’ 추론에 머무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학교들은 배려적이고 지지적인 풍토를 조성하기 보다는 경쟁적인 풍토를 조성하는 측면이 있으며 도덕적인 가치를 강조하기 보다는 입시에서의 성공과 같은 도덕 외적인 가치들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학교의 문화는 명시적 지식을 통한 반성적인 숙고와 함께 학생의 도덕적 직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수업에서 반성적인 숙고를 통해 수정된 도덕적 직관이 현실의 경험 속에서 타인들에 의해 긍정적이지 못한 피드백으로 이어진다면 수업에서의 명시적 지식들은 직관적 판단에 대한 반성적 숙고가 아닌 사후합리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학습될 확률이 높다. 그러한 경우 도덕적 인격에 대한 다양한 명시적 지식들은 현실과 괴리된 지식이 된다. 그렇기에 학교차원의 인성교육은 생활 지도 차원의 부적(negative)도덕 교육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며 이를 문화화 하는데 힘써야 한다. 또한 학교는 현재의 입시체제에서 경쟁적인 문화는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갖기 보다는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이나 심리 상태를 배려하는 지지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는 자신의 직관을 형성하고 실험하며 수정하는 장소이기에 학교에서의 지지적인 풍토를 통해 도덕적 직관이 형성된 경우, 이는 학교 밖의 사회에서의 도덕적 직관과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헤이트의 연구가 도덕 교육의 실체에 갖는 세 번째 시사점은 교육에 있어 반성적 성찰의 필요성이다. 목적적 인지와 수단적 인지는 모두 직관적인 과정들과 연결된다. 앞서 살펴보았듯 개인의 행위 선택에 있어 수단적 인지 차원의 선택들은 추론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나 이 또한 직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개인의 도덕 기능의 특정을 전제할 때, 추론 능력 그 자체의 신장은 합리화와 자기기만에 기여할 위험성을 갖는다. 그렇기에 추론은 개인의 직관을 변화시키는 반성적 성찰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정서적 영향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개인이 추론을 통해 자신의 직관을 변경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반성적 성찰은 외부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도덕 교육의 내용은 인지적인 요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명시적인 지식들은 추론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지식들이 판단의 합리화에 기여하는 ‘사후 추론’에 활용된다면 이는 오히려 도덕 교육의 목표 달성에 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명시적인 지식들은 반성적인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헤이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과와 내용들이 도덕적 직관의 수정과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식들이 ‘정서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새로운 도덕적 직관을 도출해 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이는 ‘감정 이입’을 유발 할 수 있는 내용들이나 ‘도덕적 귀감’이 되는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상기하였듯 교사가 학생들과의 배려적인 관계를 통해 학생 집단에서 중요하고 친밀한 존재로 인지된다면 교사는 스스로의 모범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교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외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우호적인 내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헤이트의 연구가 도덕 교육의 실제에 갖는 네 번째 시사점은 앞서 언급하였듯 어린 시절의 도덕적 직관 형성이 도덕성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에 초등학교 시기의 교육을 통해 아동이 도덕적 직관을 올바르게 형성하도록 도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올바른 도덕적 직관의 형성을 위해서는 첫째, 도덕적 관심 대상에 대한 범주 확장과 둘째, 도덕적 행위에 대한 접근 반응의 정서적 경향성의 내재화가 필요하다. 도덕적 관심 대상 범주 확장을 먼저 살펴보면, 나바에츠의 삼층윤리 이론은 면대면의 관계와 그를 넘어선 관계 모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도덕 발달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특정 대상 범주에만 도덕적 관심을 쏟지 않고 균형 있게 다양한 대상 범주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행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덕적 관심 대상 범주의 확장이 요구된다. 이는 인지 발달을 필요 요건으로 하지만 인지적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이러한 대상

범주 확장은 정서적 차원을 포함하는 인지 발달이어야 한다. 도덕적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경향성의 내재화는 도덕적인 학급 문화와 학생의 행위에 대한 반성적인 관점에서의 피드백, 도덕적 귀감,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사의 존재 등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례를 통해 직관을 검토하고 피드백 받는 과정이 필수적이기에, 수업의 내용은 원리나 덕목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반응을 주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V. 결론

컴퓨터 운영 체제인 윈도우의 업데이트 시스템은 윈도우의 오작동과 버그를 보완하고 윈도우가 잘 작동 되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업데이트 시스템은 운영체제의 버그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운영 체제의 메커니즘에 적용될 수 없는 업데이트 시스템은 운영체제 바깥에 따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운영체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없다.

도덕 기능의 기제에 대한 사실적 이해가 없는 도덕 교육은 인간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현실의 삶과 괴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 콜버그의 합리주의 접근에 기반한 세계의 다양한 인성 교육이 계속해서 발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론이 교육에 접목되었을 때 학생들을 도덕적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비난에 직면 하였으며, 교육이 현실과 괴리되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도덕 기능이 발현되는 기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업데이트 시스템’의 개선만을 추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직관적 특성의 도덕 기능의 기제가 운영체제인 윈도우라면, 도덕의 정당화를 통해 도덕 발달의 지향점을 설정한 이성중심의 도덕 발달 이론은 운영체제에 온전히 적용될 수는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업데이트 시스템이다. 도덕 교육이 인간을 도덕적 인격으로 키워내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은 이러한 업데이트 시스템이 운영체제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분석하고 업데이트 시스템을 가공하는 과정이다.

헤이트의 연구는 이러한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 즉, 인간 내적인 도덕 기능의 기제를 이해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다. 헤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최근의 다양한 심리학적·신경과학적 연구들을 근거로 인간의 도덕적 판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사실적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렇기에 헤이트의 이론은 우리가 도덕 교육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인간의 도덕 기능의 현실’ 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기능한다. 즉 헤이트의 직관에 대한 강조는, 그가 직접 언급하였듯, 우리가 직관적 도덕을 따라야 한다는 처방적 성격이 아닌 개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도덕’ 이라고 인지하게 되는가를 사실적 차원의 서술(Haidt, 2012/2014, pp. 478-483)로 받아들여야 한다.

헤이트 따르면 인간의 뇌에는 진화의 산물로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모듈이 있으며 이러한 모듈은 접근-회피 기제에 기반하여 정서적 반응으로 반사적으로 도출된다. 이러한 인간의 도덕 기능 기제는 ‘체화된 인지’의 ‘직관적 발현’ 이라 표현할 수 있다. 덧붙여 헤이트는 사람들에게 추론이란, 반성적인 속고로 작용하기 보다는 정서적 반응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재 이 세계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추론 능력을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 즉, 현재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헤이트가 추론을 통한 사고가 아닌 직관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헤이트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첫째, 그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우리가 익숙한 합리주의 접근의 용어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도덕적 직관 또는 도덕적 추론에 사용되는 ‘도덕적’ 이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도덕의 범주로 인지하는’ 이라는 뜻이다. ‘추론’ 이라는 용어는 인지의 형태로서 직관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자동성 의도성 등의 특징을 갖지만 합리주의 접근과 달리 정서와 분리된 이성만의 작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헤이트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둘째, 그의 발언에 있어 사실적 차원과 평가적 차원을 분리하여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문화적 차이가 도덕에 대한 인지의 프레임의 차이로 귀결된다고 주장함에 있어 문화는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의 부재를 전제로 하는 상대주의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즉 사실적 차원에서 그는 개인이 문화의 영향을 벗어난 인지를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Haidt & Bjorklund, 2008, pp. 215-216)과 추론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미루어 볼 때, ‘충

분히 문화화된 인간이 덕스러운 인간이다(A fully enculturated person is a virtuous person)' (Haidtm, Byorklund, 2008, p. 216)라는 그의 발언은 문화적 영향 하에 있는 인간 존재의 사실적 한계를 전제로 문화란 보편타당성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는 평가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가 직접 밝히고 있듯(Haidt, 2012/2014, p. 482) 그의 연구는 사실적 측면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그의 당위적 관점과 그의 연구는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헤이트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셋째, 그의 연구가 사용한 연구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의 연구는 대부분 제 3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도덕적 판단을 다루고 있으며 복잡한 상황에 있어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선택할 것인가와 같은 차원에서 도덕적 판단을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헤이트는 직관을 강조하고 추론의 역할을 과소평가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인간의 도덕 기능 중 일부의 설명에만 성공한 헤이트에 이론이 도덕 교육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그의 이론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덕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데 힌트를 준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를 살펴보면 도덕 교육이 '추론 그 자체'가 아닌 '반성적 추론'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그가 이러한 반성적 추론의 필요성을 직접 처방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추론에 의해 정서적 반응을 억누르지도 못하며 오히려 추론을 그러한 정서적 반응에 의한 행동의 합리화에 사용한다. 이러한 반성적 추론은 첫째,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하며 둘째, 정서적 영향을 동반하여야 한다.

그간 합리주의 접근은 도덕 심리학과 도덕 교육계를 이끌어오며 보편타당한 도덕원리에 기반한 추론에 대한 연구 성과를 무수히 쌓아왔다. 또한 최근의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추론과 괴리되어 정서적 반응에 따라 현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무수한 연구를 도출해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서적인 인간의 판단 기체에 영향을 미치며 반성적인 숙고를 이끌어 낼 방법 즉, 반성적 추론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직관’ 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을 설명하는 단어는 ‘반성적 추론’ 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김태훈. (2004). 도덕성 발달이론과 교육. 일산: 인간사랑.
- 박문호. (2013). 그림으로 읽는 뇌과학의 모든 것. 서울: 휴머니스트.
- 박병기, 추병완. (2007). 윤리학과 도덕교육1. 일산: 인간사랑.
- 신경인문학연구회. (2012). 뇌과학, 경계를 넘다. 서울: 바다출판사.
- 유병열. (2006). 도덕교육론. 파주: 양서원.
- 이준호. (2005). 데이비드 흄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파주: 살림출판사.
- 정창우. (2006).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파주: 교육과학사.
- 정창우. (2013). 도덕교육의 이론과 쟁점. 서울: 울력.
- 정창우, 조성태, 박영하, 이병일, 김용순, 윤영진, 김현섭, 배은주. (2009). 도덕과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일산: 인간사랑.
- 추병완. (2000). 열린 도덕과 교육론. 서울: 화우.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3). 도덕윤리과교육학개론. 파주: 교육과학사.

2) 논문

- 강두호. (2013). 도덕적 자아 정체성 발달의 도덕 교육적 의미. 윤리연구, 93, 203-229.
- 강인구. (2001).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직관, 인지양식 및 메타인지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강인구. (2008). 도덕적 판단의 인지적 과정으로서 도덕적 직관에 관한 교육적 논의. 교육심리연구, 17(3), 53-75.

- 김국현. (2012). 도덕과 교육에서 도덕적 성찰의 의미와 교수·학습 방안. 윤리교육연구, 27, 1-30.
- 김성한. (2008). 에드워드 윌슨의 윤리적 입장에 대한 재구성과 비판적 검토. 철학, 94, 109-133.
- 김태훈. (2013). 도덕과 정의적 영역 교과목표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도덕윤리과교육, 39, 131-150.
- 김하연. (2013). 나바에즈의 도덕적 전문성 모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김효은. (2009). 도덕적 판단의 본성: 신경윤리학적 접근. 과학철학, 12(2), 63-85.
- 노영란. (2013).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행위: 도덕적 성격에 대한 사회인지적 접근의 자동성 주장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91, 295-324.
- 류지한. (2012). 사회생물학과 윤리학의 통섭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리연구, 85, 77-102.
- 류지한. (2013). 직관의 과학과 윤리학에서 직관의 문제. 윤리연구, 91, 29-56.
- 박경일. (2014). 흄의 공감론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박병기, 김민재. (2012). 사회적 직관주의가 지니는 도덕 교육적 함의. 윤리연구, 84, 127-158.
- 박성춘. (2012). A Study on Social Justice in Multicultural Education.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1, 1-26.
- 박장호. (2012a). 네오-콜버그학파의 새로운 지평: D. 나르바에즈의 신경생물학(I). 인문학 논총, 28, 453-486.
- 박장호. (2012b). 네오-콜버그학파의 새로운 지평: D. 나르바에즈의 신경생물학(II), 인문학 논총, 29, 205-241.
- 박장호. (2012c). 신경과학의 도덕적 직관 이해와 도덕 교육. 윤리교육

- 연구, 29, 137-164.
- 박찬구. (1995). 흠과 칸트에 있어서의 도덕감. 철학, 44, 85-110.
- 배한동. (2000). 중등학교 민주 시민 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레스트의 도덕 발달론적 접근. 도덕윤리과교육연구, 12, 153-175.
- 서미옥. (2005). 4구성요소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본 도덕발달 연구의 지향점. 중등교육연구, 53(2), 159-182.
- 손경원. (2011). 도덕적 정체성 이론은 탈 콜버그주의인가. 한국철학논집, 32, 395-432.
- 손경원. (2012). 도덕 심리학의 연구의 최근 동향과 도덕과 핵심 역량 개발.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제 86회 학술발표대회, 63-120.
- 손경원. (2014). 도덕적 정체성에 근거한 인격교육 연구. 윤리교육연구, 34, 113-147.
- 유권중. (2010). 노하우로서의 倫理 : 프란시스코 바렐라의 인지과학과 동양철학 연구. 동양철학, 34, 615-641.
- 이인재, 최창욱, 류숙희, 운영돈. (2012). 레스트의 4구성요소 모델에 의한 도덕적 품성화의 구성 개념 탐구. 윤리연구, 84, 159-192.
- 이정렬. (2007). 도덕적 자아의 보편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성. 도덕윤리과교육, 24, 255-274.
- 이정렬. (2009). 도덕적 인격 형성을 위한 도덕적 정체성의 역할과 도덕교육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이정렬, 정창우. (2012). 도덕 심리학의 흐름 및 쟁점과 도덕과 교육의 과제. 윤리연구, 87, 143-185.
- 이정렬. (2013). 체화된 마음의 가능성과 도덕교육적 의의- A. Damasio의 체화된 마음 개념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88, 151-177.
- 이정렬. (2014). 암묵적 지식의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윤리과교육, 42, 1-27.
- 이태윤. (2014). 실천능력의 향상을 위한 초등 도덕 교과서 단원 재구

- 성. 초등도덕교육, 45, 369-398
- 정영우. (2011). 통합적 인격교육에 대한 도덕적 정체성의 함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정창우. (2003). 도덕적 자아 형성을 위한 도덕교육방법. 초등도덕교육, 13, 183-225.
- 정창우. (2004). 초중등 도덕과 교육의 목표 설정을 위한 도덕 심리학적 기초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18, 112-130.
- 정창우. (2011). 도덕 심리학 연구의 최근 동향과 도덕교육적 함의 - 헤이트(J. Haidt)의 뇌과학 연구를 중심으로. 초등도덕교육, 37, 95-130.
- 정창우. (2012). 나바에즈(D. Narvaez) 도덕발달 이론의 특성과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윤리과교육, 37, 329-361.
- 정창우, 한혜민. (2012). An Integrated Model of Moral Reasoning and Moral Intuition: Implications for Moral Education.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1, 81-107.
- 최희봉. (2007). 근대 유럽의 도덕론과 흄. 철학탐구, 22, 67-95.
- 추병완. (2013). 신경과학 시대에서 도덕교육의 새 패러다임. 윤리연구, 93, 231-264.
- 한일조. (2008). 도덕성에 대한 뇌 과학적 연구 성과와 도덕교육. 교육철학, 36, 307-338.

2. 국외문헌

1) 단행본 및 번역서

- Arrington, R. L. (2003). 서양윤리학사. (김성호 역). 파주: 서광사.
(원서출판 1938)

- Broad, C. B. (2000). 윤리학의 다섯 가지 유형: 스피노자 · 버틀러 · 흄 · 칸트 · 시즈윅크. (박찬구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원서출판 1965)
- Davidson, R. J., Goldsmith, H. H. (2003).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 Oxford University Press.
- Damasio. A., (2005).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Penguin Books.
- Gazzaniga. M. (2009). 왜 인간인가. (박인균 역). 서울: 추수밭. (원서출판 2008).
- Gazzaniga. M. (2012). 뇌로부터의 자유 : 무엇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종하는가?. (박인균 역). 서울: 추수밭. (원서출판 2011).
- Greene, J. D. (2008). The Secret Joke of Kant' s Soul. In Sinnott-Armstrong. W., Moral Psychology(V. 3): The neuroscience of Morality: Emotion, Brain disorders, and Development, MIT Press
- Haidt. J. (2003). The moral emotions. In Davidson, R. J.,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 Oxford University Press
- Haidt. J. (2003). 도덕적 판단에 관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 (강인구 역). 일산: 서현사. (원서출판 2001).
- Haidt. J. (2010). 고대의 지혜에 현대 심리학이 답하다 : 행복의 가설, (권오열 역). 안양: 물푸레. (원서출판 2006).
- Haidt. J. (2014). 바른마음. (왕수민 역).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원서출판 2012)
- Haidt. J., Bjorklund. F. (2008). Social intuitionist answer six questions about moral psychology. In Sinnott-Armstrong. W., Moral Psychology(V. 2): The cognitive science of morality: Intuition and diversity, MIT Press

- Haidt. J., Joseph. C. (2008). The moral mind: How five sets of innate intuitions guide the development of many culture-specific virtues, and perhaps even modules. In Carruthers. P., Laurence. S. The Innate Mind(V. 3): Foundations and the Future(Evolution and Cogn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Keltner. D., Haidt. J., Shiota, M. N., (2006), Social functionalism and the evolution of emotions. In Schaller. M., Simpson, J. A., Kenrick, D. T., Evolution and Social Psychology(Frontiers of Social Psychology), Psychology Press.
- Koch. C. (2006). 의식의 탐구: 신경생물학적 접근. (김미선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서출판 2004)
- Kohlberg. L. (2000). 도덕발달의 심리학. (김민남, 진미숙 역). 파주: 교육과학사. (원서출판 1984).
- Lakoff. G. (2006).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유나영 역). 서울: 삼인출판사. (원서출판 2004)
- Lapsley, D. K., Power, F. C. (2008).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정창우 역). 파주: 인간사랑. (원서출판 2005).
- Levy. N. (2011). 신경윤리학이란 무엇인가 : 뇌 과학, 인간 윤리의 무게를 재다. (신경인문학연구회 역). 서울: 바다출판사. (원서출판 2007)
- Lickona. T., Davidson. M., & Khmelkov. W. (2008). Smart & Good Schools: A New Paradigm for High School Character Education. In Nucci. L.,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Educational Psychology HandBook), Routledge.
- Margolis. H. (1987). Patterns, Thinking, and Cognition: A Theory of Judg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arvaez. D. (2007a). How Cognitive and Neurobiological Science Inform

- Values Education for Creatures like US. In Aspin, D. N., Chapman, J. D., Values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Principles, Policies, Programmers, Springer.
- Narvaez. D. (2007b). Human Flourishing and Moral Development : Cognitive and Neurobiological Perspectives of Virtue Development. In Nucci. L.,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Educational Psychology HandBook), Routledge.
- Narvaez. D. (2008). The social intuitionist model: Some counter intuitions. In Sinnott-Armstrong. W., Moral Psychology(V. 2): The cognitive science of morality: Intuition and diversity, MIT Press.
- Power, F. C., Higgins. A. (2008). The Just Community Approach to Moral Education and the Moral Atmosphere of the School. in Nucci. L. E., Narvaez. D.,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 Routledge.
- Rozin. P., Haidt. J., & McCauley, C. R. (2008). Disgust. In Lewis. M., Handbook of emotions(3rd), Guilford Press.
- Shweder, R. A., Mahapatra. M., Miller, J. G. (1990). Culture and Moral Development. In Kagan. J., The emergence of morality in young childre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weder, R. A., Much. N. C., (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Expeditions in cultural psych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 Varela, F. J., (2009). 윤리적 노하우. (유권중, 박충식 역). 서울: 갈무리. (원서출판 1999).
- Varela, F. J., Thompson. E. & Rosch. E. (2013). 몸의 인지과학. (석봉래 역). 파주: 김영사. (원서출판 1992).

2) 논문

- Bargh. J., Ferguson. M. (2000). Beyond behaviorism: On the automaticity of higher mental process. *Psychological Bulletin*, 126(6), 925–945.
- Blasi. A. (1980). Bridging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A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1), 1–45.
- Blum. L. (2013). Political identity and moral education: A response to Jonathan Haidt's *The Righteous Mind*. *Journal of Moral Education*, 42(3), 298–315.
- Graham. J., Haidt. J., & Nosek, B. A. (2009).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1029–1046.
- Graham. J., et al. (2013). Moral Foundation Theory: The pragmatic validity of moral pluralism.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 55–130.
- Greene. J., et. al. (2001). An fMRI investigation of emotional engagement in moral judgment., *Science*, 293(5537), 2105–2108.
- Greene. J., Haidt. J. (2002), How (and where) does moral judgment work?. *Trends in Cognitive Science*, 6(12), 517–523.
-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4), 814–834.
- Haidt. J. (2007). The new synthesis in moral psychology. *Science*, 316(5827), 998–1002.

- Haidt. J. (2010). Moral psychology must not be based on faith and hope: Commentary on Narvaez.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2), 182–184.
- Haidt. J., Byorklund. F. & Murphy. S. (2000). Moral dumbfounding: When intuition finds no reas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Virginia
- Haidt. J., Graham. J. (2007). When morality opposes justice: Conservatives have moral intuitions that liberals not recognize. *Social Justice Research*, 20(1), 98–116.
- Haidt. J., Joseph. C. (2004). Intuitive ethics : how innately prepared intuitions generate culturally variable virtues. *Daedalus*, 133(4), 55–66.
- Haidt. J., Joseph. C. (2011). How moral foundations theory succeeded in building on sand: A response to Suhler and Churchland.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23(9), 2117–2122
- Haidt. J., Koller, S. H. & Dias, M. G. (1993). Affect, Culture, and Morality, or Is It Wrong to Eat Your Do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4), 613–628.
- Hofmann. W. (2014), Morality in everyday life. *Science*, 345(6202), 1340–1343.
- Keltner. D., Haidt. J., (1999). Social functions of emotions at four levels of analysis. *Cognition & Emotion*, 13(5), 505–521.
- Maxwell. B., Beaulac. G. (2013). The concept of the moral domain in moral foundations theory and cognitive developmental theory: Horese for Courses?. *Journal of Moral Education*, 42(3), 360–382.
- Murphy. P. (2014). Teaching applied ethics to the righteous mind. *Journal of Moral Education*, 43(4), 413–428.

- Musschenga, A. W. (2009). Moral Intuitions, Moral Expertise and Moral Reasoning.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3(4), 597–613.
- Musschenga. B. (2013). The promises of moral foundations theory. *Journal of Moral Education*, 42(3), 330–345.
- Narvaez. D. (2010a). Moral Complexity: The fatal attraction of truthiness and the importance of mature moral functioning.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2), 163–181.
- Narvaez. D. (2010b). The embodied dynamism of moral becoming: Reply to Haid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2), 185–186.
- Narvaez. D., Lapsley. D. K. (2005). The Psychological Foundation of Everyday Morality and Moral Expertise. *Char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 43, 140–165.
- Narvaez. D., Lapsley. D. K. (2009). Moral Identity, Moral Functioning,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50, 237–274.
- Narvaez. D., Vaydich, J. L. (2008).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ur under the spotlight of the neurobiological science. *Journal of Moral Education*, 37(3), 289–313.
- Parkinson. C., Sinnott–Armstrong. W. (2011). Is Morality Unified? Evidence that Distinct Neural System Underlie Moral Judgment of Harm, Dishonesty, and Disgust.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23(10), 3162–3180.
- Paxton, J. M., Ungar. L. & Greene. J. (2012). Reflection and Reasoning in Moral Judgment. *Cognitive Science*, 36(1), 163–177.
- Rebecca. J., et al. (2014). Moral rationality and intuition: An explor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Defining Issues Test and the Moral Foundations Questionnaire. *Journal of Moral*

Education, 43(4), 395–412 .

Shweder. R., Haidt. J. (1993). The future of moral psychology: truth, intuition, and the pluralist way. *Psychological Science*, 4(6), 360–366.

Suhler, C. L., Churchland. P. (2011). Can Innate, Modular ‘Foundations’ Explain morality? Challenges for Haidt’ s Moral Foundations Theory.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23(9), 2103–2116.

Wheatley. T., Haidt. J. (2005). Hypnotic disgust makes moral judgments more severe. *Psychological Science*, 16(10), 780–784.

ABSTRACT

A Study on J. Haidt's Social Intuitionist Model

Yang Hae Sung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J. Haidt's social intuitionist model emphasizes role of intuition and cultural influence in individuals moral functioning, especially in moral judgment. The model states that moral judgment is generally the result of quick, automatic evaluation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ssess adequacy of Haidt's social intuitionist model and discover the implication of the model.

According to Haidt, individual's moral judgement is formed by culture and is influenced largely by emotion. It ends to appear as the form of intuition. To understand his study fully, three points have to be made clear. First, the terms in his study have to be figured out clearly. He uses the term 'moral judgement' as a meaning of the assessment to the behavior of a third party, not as a meaning of a judgement to choose the moral behavior. Also, he uses the term 'reasoning' as a form of recognition, which is comparing to intuition. The term is characterized by intentional, effortful features and so on. However, this term does not mean rational decision which is separate

from emotion. Second, Haidt's establishment of the fact in his study and his view on justifiability should be distinguished. When he establishes the fact in his study, he contrasts 'culture' with 'universality'. Though he regards individuals as a being who can not be free from cultural influence, he denounces the extreme relativism. Third, his method of study should be grasped. He studies about moral judgement related to the assessment of the behavior of a third party. But he is not interested in how to make a moral judgement in the complex situation. This makes he highlights the intuition.

Even though it is hard to say that his study is not perfect, it contributes greatly because it illustrates facts of moral functioning of a human being. The first thing is that the emotion motivates individual to do moral behavior and reasoning contributes in rationalizing the judgment. Thus, moral education should help young students to internalize justifiable moral intuition. Moral education should concentrate on the reflective thinking, not merely on the reasoning ability in their adolescence. In addition, the self-reflective reasoning process is not easy to be created in one's inner side spontaneously. So the moral education which include the emotional influence has to play the role providing the chance of reflective thinking. The second thing is that the moral education should aim to do "raise the human being who regards a moral life as a happy life" because individuals usually act and make a decision depending on the emotional response.

Key words : Haidt, moral functioning, social intuitionist, moral judgment, moral intuition, reflective thinking, moral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1-21554